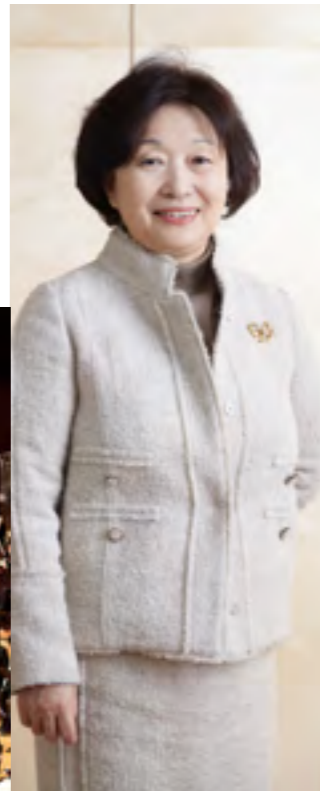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Spring, 2014. Vol.13



음악대학 소식



음악대학 소식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인사의 말씀 04

주요행사

- 세계로 나아가는 힘찬 바람_ SNU 윈드 앙상블 정기연주회 06
- Always Remembered_ 서울대음대 · 북경중앙음악원 합동연주회 08
- 품격이 깃든 유쾌한 무대_ 201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기 오페라 《돈 파스칼레》 12

Masterpieces by S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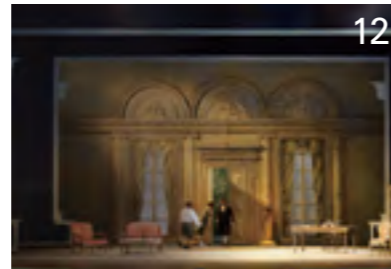
- 시대를 아우르는 열정_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내연주회 14
-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구, 전주 순회연주회 15
- 협주곡의 밤_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6
- 새해를 여는 힘찬 바람_ 관악 오케스트라 교외연주회 17
- 실내악의 향연_ Spirit of SNU Strings III 18
- 현을 마주하는 감동_ SNU 스트링 앙상블 19
- 한국음악의 명맥을 잇다_ 국악과 대학원 정기연주회 19
- 뛰어난 기량으로 빛어낸 우리소리의 아름다움_ 국악과 정기연주회 20

리뷰 & 리포트

-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_ 동문음악회 22
-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울림_ STUDIO 2021 23

사회와 함께하는 음악대학

- 꿈과 희망의 음악_서울특별시 교육청-서울대 협력 사제동행 “행복나눔 콘서트” 26
- 예술로 하나되는 꿈과 희망의 축제 제3회_ 전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28
- 관악구민과 함께하는_ 화요음악회 30
- 희망과 감동의 음악_ 병원음악회 32



변함없는 음악가의 길 - 정년퇴임교수 인터뷰

- 34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_ 기악과 백청심 교수
- 36 순수한 열정의 여정_ 성악과 윤현주 교수

감사합니다

- 38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강의실을 찾아서

- 40 나만의 소리를 찾아서_ 소리의 과학과 악기제작 체험/이돈웅 교수
- 42 두드림과 울림의 미학_ 실내악 앙상블/최경환 교수

콘서트를 찾아서

- 44 최고들이 빛어낸 이국적 향기_ IBK 콘서트/윤혜리 교수

음악대학 연구프로젝트 탐방

- 46 음악과 뇌 '인간 뇌의 음악 모듈:
화성, 선율, 리듬의 신경학적 메커니즘 연구'/이석원 교수

언덕방

- 48 Meeting of Two Worlds_ 에세이/Roland Breitenfeld 교수
- 50 서양의 창을 만나다_ EBS 서양음악기행 후기/박종화 교수
- 52 무대 뒤의 숨겨진 열정_ 오페라 《돈 파스칼레》
- 53 게릴라 인터뷰_ 연습실 탐방

54 브라보! 프라이즈 워너

학과&연구소 소식

- 57 교수 동정
- 64 학과 및 연구소 소식

65 동문소식

Dean's Message 04

Main Events

- SNU Wind Ensemble 06
- SNU College of Music & Central Conservatory of Music "Seoul Concert" 08
- 2013 SNU College of Music Regular Opera 《Don Pasquale》 12

Masterpieces by SNU

- SNU Symphony Orchestra Regular Concert 14
- SNU Symphony Orchestra Campus Concert 15
- SNU Philharmonic Orchestra Regular Concert 16
- SNU Wind Brunch Concert 17
- Spirit of SNU Strings III 18
- SNU String Ensemble 19
- Dept. of Korean Music Regular Concert of Grad. School 19
- Dept. of Korean Music Regular Concert 20

Review & Report

- Alumni Concert 22
- STUDIO 2021 23

College of Music Outreach

-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NU College of Music Concert 26
- Student Orchestra Project Festival 28
- SNU Tuesday Concerts 30
- SNU Hospital Concerts 32



Interviews

- 34 Prof. Chung sim Baik, Retiring Professor
- 36 Prof. Yun, Hyunjoo Retiring Professor

Appreciation

- 38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Classroom

- 40 Sound and Musical Instrument /Prof. Donoung Lee
- 42 Chamber Music Ensemble /Prof. Kyung-Hwan Choi

Searching for Concert

- 44 IBK Concert/Prof. Hyeri Yoon

Expedition into Research of College of Music

- 46 Music and Brain 'Musical Module of Human Brain:
Research on Neurological Mechanism of Harmony, Melody and Rhythm' by
Prof. Yi, Suk Won

Essay

- 48 Essay/Prof. Roland Breitenfeld
- 50 EBS 《Trip on Western Music》/Prof. Jong-Hwa Park
- 52 Behind Story_Opera 《Don Pasquale》
- 53 Practice Room Interview

54 Bravo! Prize Winner

Academic Activities

- 57 Faculty Activities
- 64 Academic Activities

65 Alumni News

인사의 말씀



희망이 넘치는 새 봄을 맞이하여
우리 음악대학의 역동적인 활동과
한 걸음 더 도약하고자 하는 치열한 모습을
제13호 소식지에 담았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저희 음악대학은
교수님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지방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중국 최고의 음악교육기관인
북경중앙음악원과 교류했으며
서울대에서도 훌륭한 합동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오페라 《돈 파스칼레》 공연과 SNU Wind Ensemble,
실내악 앙상블 등 학생들의 수준 높은 연주도
주목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음악대학은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부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전국의 2500여명의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대규모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펼쳤고,
시흥시-서울대음대생 음악 멘토링 사업,
서울시 교육청과 같이하는 MOU 사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제 법인화가 정착되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음악대학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교내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국내 최고의 음악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끊임없이 더욱 발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김영률

음악대학 학장 김영률

Dean's Message

With the coming of new spring full of vitality and hope,
We have attempted to incorporate
the dynamic activities and optimistic desires of College of Music
within this Newsletter No. 13.
During the last semester, our College of Music
has achieved commendable results
with the sincere efforts of students
and the passion of our professors.

SNU Symphony Orchestra has successfully
accomplished its countryside tour.
We have communicated with Beijing Central Conservatory of Music,
China's best music education institute.
We have also performed beautifully
in a joint recital held domestically.
In addition, concert on the opera <Don Pasquale>, SNU Wind
Ensemble, Chamber Music Ensembles and other high quality
performances received great attention for their excellence.

Furthermore, College of Music is striving to contribute to society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With the successful progress of student orchestra business
by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over 2500 students nationwide we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large Orchestra Festival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entoring Initiative between the City of Siheung and students of
College of Music, as well as the MOU project adjoined with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re ongoing projects.

With the settlement of its incorpo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now at the international level.
College of Music is attempting to step up to such changes,
and to establish a more firm position on campus
as the nation's top music institution.
Even today, we are striving towards progress and further
development.

We sincerely thank you all for your continued interests and earnest
efforts.

March, 2014

Dean of the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Wind Ensemble

The regular concert of the SNU Wind Ensemble was held on September 1st in the concert hall of Seoul Arts Center. SNU Wind Ensemble presented Wagner's <Tannhauser Overture>, Ludwig Albert's Marimba Double Concerto <The Universe>, Stravinsky's <Symphonies of Wind Instruments> and Leos Janacek's <Sinfonietta>. Prof. Young-Yul Kim conducted whole performance collaborating with Marimba performer Ludwig Albert and Chin Cheng Lin.

세계로 나아가는 힘찬 바람

SNU 윈드 앙상블

지난 9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13 SNU 윈드 앙상블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김영률 교수의 지휘로 진행된 이날 공연의 프로그램은 전반부에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과 루디 알버트(Ludwig Albert)의 《우주(The Universe)》, 후반부에 스트라빈스키의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들(Symphonies of Wind Instruments)》, 그리고 야나체크의 《신포니에타(Sinfonietta)》로 꾸며졌다. 이번 기회로 국내 초연을 맞이한 루디 알버트의 《우주》는 두 대의 마림바를 위한 협주곡으로, 이날 공연의 협연자로는 알버트 자신과 친첵린(Chin Cheng Lin)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는 국내 초연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원 작곡가인 알버트가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는 연주였다. 알버트는 벨기에 출신의 마림바 연주자로,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뛰어난 마림바 연주자 중 한 명이다. 공연장에는 이번 SNU 윈드 앙상블과의 협

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알버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여든 발걸음으로 가득찼다. 후반부의 시작을 장식한 스트라빈스키의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들》은 1920년에 작곡된 곡으로 1918년에 세상을 떠난 작곡가 드뷔시에게 바치는 스트라빈스키의 오마주이다. 당시 프랑스의 현대음악을 이끌던 작곡가, 드뷔시를 추모하기 위한 이 작품에는 프랑스적인 특징보다는 러시아 정교회의 종교음악이 사용되어 스트라빈스키만의 독특한 음악세계가 담겨 있다. SNU 윈드 앙상블이 표현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색채로 콘서트홀 안을 가득 채운 이번 연주는 관객들에게 많은 갈채와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선보인 야나체크의 《신포니에타》는 이날 공연의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규모 편성으로 만들어진 이 곡은 무대 위에 있는 수 십 명의 연주자 이외에도 무대 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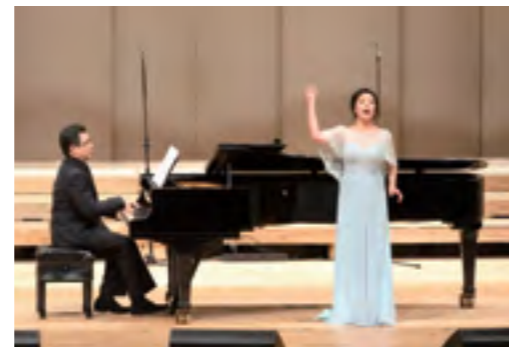
서 연주하는 12인조의 백스테이지 연주자가 함께하는 대곡이다. 총 다섯 악장으로 구성된 《신포니에타》는 1악장의 팡파르를 시작으로 리듬과 색채가 풍성해진 2악장, 서서히 소용돌이를 묘사하는 3악장, 장대한 느낌으로 가득 찬 4악장, 마지막으로 기쁨과 승리를 느끼게 해주는 5악장을 거치며 전악장이 피날레를 향해 진행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백스테이지 연주자들의 효과는 단연 압도적이었다. 백스테이지 연주자는 서울음대 기악과를 졸업한 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생 연주자들과 현 재학생으로 구성된 스페셜 게스트였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19세기 작곡가들의 작품부터 21세기 작곡가 루디 알버트의 현대적인 장르까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명작들로 꾸며진 이날 무대는 SNU 윈드 앙상블의 한층 더 발전된 기량을 통해 완성되었고, 학생들의 훌륭한 연주와 김영률 교수의 탁월한 곡 해석은 무대를 감

상하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3층까지 가득 메워진 객석을 통해 SNU 윈드 앙상블의 무대에 대한 클래식 애호가들의 관심과 사랑 또한 실감할 수 있었다. 이미 대규모 편성과 역동적이고 개성 있는 음향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SNU 윈드 앙상블은 앞으로도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다 깊이 있게 준비하고 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SNU 윈드 앙상블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김영률 교수와 관악전공 학생들의 다음 결실을 기대해본다.

서울대음대- 북경중앙음악원 합동연주회

SNU College of Music & Beijing Central Conservatory of Music "Seoul Concert"

On last November 15th, the joint concert with China's Central Conservatory of Music was held in the university cultural center with Prof. Xia Xiao Tang's conducting. In the concert, Prof. You Xi, a globally renowned pianist, performed China's traditional pieces <Ping Hu Qiu Yue>. The Finale of the concert was Korean traditional folk song <Arirang>.



겨울이 성큼 다가온 지난 11월 중순, 중국으로부터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중국 최고의 음대 북경중앙음악원(北京中央音樂院) 교수 및 학생 일행 40~50명이 서울대 음대를 방문한 것이다. 이번 방문은 서울대와 북경중앙음악원의 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한중 수교 21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졌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음악기관은 우수한 인적자원들의 교류를 추진하고 정기적인 합동공연을 통해서 한국에는 중국음악을 알리고 중국에는 한국음악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계획이다.



2013년 11월 15일, 문화관 대강당에서 양국 학생들의 합동공연이 열렸다. 현직 주중대사 등 귀빈들의 참석 하에 이루어진 공연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두 학교 간의 MOU체결에 호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올해 행사는 한국에서 중국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내년 행사는 중국에서 한국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주회는 오케스트라, 합창, 앙상블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이루어졌다. <Always remembered>라는 테마로 열린 이날 공연에서 양국의 학생들은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으며 성공적인 공연으로 내년에 있을 중국 공연을 기대하게 했다.

본 공연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주최하였으며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중국음악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첫 곡인 <평호추월>은 뤼원칭이 작곡한 중국 전통곡으로 작곡가가 항저우의 풍경을 유람하다가 민요를 수집하여 만들어진 곡이다. 이후 천페이선이 이 곡을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하였으며 80년대부터 중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날 연주를 맡은 피아니스트 여우시는 중국에서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피아니스트로 공연에서 뛰어난 기교를 선보였다.

두 번째 곡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랴>는 중국의 전통적인 선율이 담긴 작품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항일운동이자 중국 근대사의 이정표로 불리는 5.4 운동에서 활약한 애국청년들을 기린 이 곡은 당시 중국인들의 항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표현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 전통악기인 얼후의 선율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후반부에 연주된 <나는 장강 상류에 살고 있어요>는 현대 중국인에게 널리 사랑 받고 있는 곡으로 중국 당나라 시인인 백거이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애국시인이라 불리며 중국인의 감성

을 자극하는 백거이의 가사와 중국 전통 선율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양귀비와 당현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밖에 <꽃은 왜 이렇게 붉을까>, <사향곡> 등 위구르, 몽골과 같은 중국 내 소수민족의 민요를 중국어로 개사한 곡들이 연주되어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다채로운 음악세계를 선보였다.

마지막 곡은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와 우호를 다지며 우리나라 전통민요인 <아리랑>이 연주되었다. 양국 학생들은 짧은 리허설 시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량을 보여주었으며 관객들에게 큰 박수갈채를 받으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북경중앙음악원의 비올라 연주자인 가오페이징 학생은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기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중국에서도 한국의 음악이 많이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지휘를 맡은 샤샤오탕 교수는 "공연을 준비하면서 한국 측의 환대와 우수한 실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살려서 더 많은 양국 음악가들이 교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북경중앙음악원장 왕츠자오 특별강연

특강: 중국 음악의 역사 – 전통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지난 11월 14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도서관에서 북경중앙음악원 원장이자 박사지도교수인 왕츠자오의 “중국음악의 역사-전통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왕츠자오 교수는 『음악미학기초』를 비롯한 8권의 저서와 200편의 가까운 음악학 관련 논문을 발표한 중국 국가 유공 전문 연구자로서 전국 우수 교학성과 분야 국가 급 1등상과 베이징 시 우수교학성과분야 1등상, 중국 음악금종상 이론평론상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번 특강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북경중앙음악원, 즉 한국과 중국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기회로 만들어진 행사의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전통음악에 관한 강의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왕츠자오 원장은 칠현금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고대음악, 서양의 음악양식을 거울로 삼은 중국 전통음악 그리고 유가와 도가 사상의 심미 관념에서 비롯된 중국 전통음악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강연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중국 음악은 길고 긴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추적한 가장 오래된 중국 고대 음악은 바로 칠현금 음악이며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진나라 때 이미 성행하였고 당·송 대에는 600여 곡의 금보가 남겨져 있다. 그리고 중국 민간에서 전해오던 음악에는 민간가곡, 설창음악, 희곡음악 그리고 민중기악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설창음악은 한국의 판소리와 것으로 이야기 하듯이 노래하면서 악기도 같이 연주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재로는 양자강 이야기를 들 수 있다. 강의 중에 90세 할머니 연주자가 연주하는 설창음악을 직접 들려주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독특한 표현형식을 가진 중국 전통음악은 현대 발전에 있어 서양의 음악양식을 많이 반영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얼후(한국의 해금과 유사한 악기) 협주곡 장성수상곡이 있다. 왕츠자오 교수는 “지금의 중국 학생들은 중국 전통음악과 서양의 음악전통이 결합된 이러한 양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중국이 배출한 유명 작곡가 탄둔이 학부 3학년 때 작곡한 얼후와 양금을 위한 곡, 《쌍궐》을 들려주며 중국 전통음악의 현대발전 양상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도가 사상의 심미 관념과 중국 전통음악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가의 심미 관념인 상징과 은유 그리고 “허”의 정취와 “함축적 표현방식”으로 대표되는 도가의 심미 관념은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대표적인 곡으로는 가야금 연주곡 《매화삼농》이 있다. “이 곡은 엄동의 추위를 이기고 눈보라에 굴하지 않는 인간의 고상하고 순결한 품격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전통이 당대의 음악창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강의를 마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넘치는 관심과 열의를 엿볼 수 있었다. 본 강연에 관한 것부터 현재 중국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가에 이르는 질문들이 쏟아졌고, 결국에는 시간적으로 아쉬움이 남았다.

왕츠자오 교수의 “중국음악의 역사-전통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강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중국 음악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고, 또한 한국과 중국의 음악적 소통의 자리였다. 이 소통과 공감의 장은 뜨거운 열의와 함께 그 막을 내렸다.



Lecture “Traditional Music of China and its Modern Progress”

On Nov 14, Professor Wang Tsu of Beijing Central Conservatory delivered a lecture on “Traditional Music of China and its Modern Progress” at the Music Libr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tents of this lecture included traditional Chinese music represented as seven-stringed Gum (Chil-Hyun Gum), traditional Chinese music mirroring that of Western traditional music, and Chinese traditional music based on aesthetic notions of Confucianism and Taoism. This lecture was provided as a brilliant opportunity for the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Beijing Central Conservatory-for South Korea and China-to come closer together. The lecture wa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learn more about Chinese music, and served as a model of musical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이모저모

이번 행사에서는 양국 학생들의 합동 공연 외에도 중국 학생들의 캠퍼스 투어와 서울 투어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다.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천쑤메이 학생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음악대학은 콘서바토리 형식이라서 다양한 학문을 접하기 어려웠는데 서울대는 종합대학이기에 학생시절에 많은 것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럽다.”며 중국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감상을 전했다. 중국 학생들은 방한 기간 동안 한국의 여러 명소를 여행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였으며 서울대 음대 학생들과 깊은 교류를 나누었다.



품격이 깃든 유쾌한 무대

201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기 오페라

《돈 파스칼레》

201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28회 정기오페라로 도니제티의 《돈 파스칼레》가 무대에 올랐다. 작년에 푸치니의 《라보엠》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연이어 오페라 정기공연이 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그만큼 성악과 오페라 공연이 높이 평가 받고 주목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악과 박세원 교수와 윤현주 교수가 무대감독을 맡은 이번 공연 역시 서울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의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는 공연으로 평가된다. 《돈 파스칼레》는 70대 수전노 노총각 파스칼레에 대한 조카 커플의 귀여운 복수를 다룬 희극 오페라로서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해학, 풍자를 통해 숨겨진 인생의 철학을 선보이는 작품이다.

오페라 부파 담게 인물들간의 코믹한 스토리에서 묻어 나오는 웃음과 도니제티의 품격 있는 벨칸토 음악으로 볼거리와 들을 거리가 풍성했던 《돈 파스칼레》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문화관 대강당뿐만 아니라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도 상연되었다. 강동아트센터에서는 9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상연되었으며 돈 파스칼레 역에 허철수, 노리나 역에 김성지와 이은송이, 말라테스타 역에 최강지, 에르네스토 역에 진성원과 김태원 등이 연기했다. 예술감독은 박세원, 연출은 이정재, 지휘는 구모영, 연주는 서울대학교 오페라연구소 앙상블 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에는 서울대학교 성악과 합창단이 역할을 맡았다.

강동아트센터에서의 공연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돈 파스칼레》 또한 유쾌한 감동을 전하며 성공적으로 상연되었다. 강동아트센터의 무대에서는 주로 유명한 성악가들이 주연이었다면 문화관에서는 학부생과 석사생이 무대에 올라 연기를 하였다. 돈 파스칼레 역에 이바울과 함정찬, 노리나 역에 김주현과 박주현, 말라테스타 역에 황선엽, 우종범과 안정민, 에르네스토 역에 강운광, 장주훈과 고태영 등이 각각 연기하였고 예술감독은 윤현주 교수, 지휘는 김덕기 교수와 김영량(지휘·석사), 연출은 이정

재가 맡았으며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성악과의 합창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돈 파스칼레》는 작품의 구성적 측면으로나 연출적 측면으로나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 각각의 캐릭터를 맡은 성악가들의 재치 있는 연기에 극이 진행되는 내내 관객석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처음 막이 오르고 극의 배경이 되는 파스칼레의 집은 그 화려함에 눈이 부셨다. 더불어 1,2학년으로 구성된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실황 연주는 극을 밀받침 함과 동시에 극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문화관 대강당에서의 마지막 공연 날 커튼콜 무대에서는 출연진을 비롯한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의 환호를 받고 서로를 축하하였으며 무대 뒤에서 함께 고생한 스태프들도 서로를 함께 격려하는 모습이었다. 수 개월에 걸친 모두의 노력이 하나의 감동으로 물든 순간이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오페라는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으며 학생들의 뛰어난 재능과 노력은 매번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해왔다. 2012년 《라보엠》에 연이어 《돈 파스칼레》까지. 다음에는 또 어떤 작품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2013 Regular Opera <Don Pasquale>

Donizetti's <Don Pasquale> climbed on stage for the 2013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s 28th Regular Opera. As an opera buffa, <Don Pasquale> was filled with sights and spectacle from the laughter resulting from comical interactions of its characters and from the elegant bel-canto music of Donizetti. It was staged over two locations: Gang-dong Arts Center and the grand auditorium of the Cultural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oth the composition and directive aspects of <Don Pasquale> were of high quality, and the entire cast and staff stepped up stage to receive enthusiastic applause at the curtain call of its last performa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ultural Center. We look forward to the next opera performance of the Opera team of the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currently recognized as the best in Korea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시대를 아우르는 열정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내연주회



지난 6월,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에서 브루크너로 진한 감동을 선사한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하반기 첫 정기연주회가 11월 27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에서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고전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곡을 선보였다.

첫 곡으로는 백승현(지휘·12)의 지휘아래 모차르트 《교향곡 31번 라장조 <파리> K.297(300a)가 연주되었다. 클라리넷의 2관 편성이 특징인 모차르트의 <파리>교향곡에서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관악기의 협주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어진 무대는 하이든 《첼로협주곡 D장조 Op.101》로, 협연에는 임재린(첼로·11), 그리고 이규성(지휘·09)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하이든으로서는 비교적 화려한 악곡으로 첼로의 기교가 특히 돋보이는 이 곡에서 임재린 학생은 열정적인 연주를 선보였다.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종진(지휘 박사·12) 지휘의 스트라빈스키 《풀치넬라》는 그 인기가 대단하였다. 풀치넬라 모음곡은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작품으로서 리듬과 관현악 편성에 있어서 재치 넘치는 접근이 돋보이는 곡이다. 스트라빈스키는 이 곡을 두고 “난 그것을 보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날 연주회를 찾은 관객들 역시 무대를 보고 사랑에 빠진 듯 하였다.

Regular Campus Concert of SNU Symphony Orchestra

On Nov 27, 2013, The First concert of the SNU Symphony Orchestra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as held at the Concert Hal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s Center. The SNU Symphony Orchestra has provided a lasting impression with the music of Anton Bruckner at the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 last summer. An accompanied Cello performance by Jae-Rin Lim and conducting by Seung-Hyun Baek, Kyu-Sung Lee, and Jong-Jin Lee comprised the concert. The performances included W. A. Mozart's <Symphony No.31 "Paris" in D major K.297>, F. J. Haydn's <Concerto for Cello and Orchestra in D major, Op.101>, and I. Stravinsky's <Pulcinella>.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구 전주 순회연주회



2014년 12월, 해마다 놀라운 도전을 거듭하며 대학오케스트라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7년 만에 대대적으로 연주여행을 떠났다. 그동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브루크너(Bruckner), 말러(Mahler)의 교향곡과 같은 대곡들을 프로와 같은 수준으로 연주하며 실력을 뽐내었다. 이번 학기는 이미 말러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임현정 교수의 지휘로 말러 교향곡 1번 《거인》과 모차르트 교향곡 35번 《하프너》를 선보였다. 이번 연주여행의 첫 출발은 12월 13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부터였다. 매우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여든 관객들로 인해 문화관 대강당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명료하고 경쾌한 모차르트의 《하프너》 교향곡은 앞으로 있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여행의 밝은 서막을 알렸다. 그리고 이윽고 시작된 말러, 모든 관객들은 마치 저 멀리서 아련하게 들려 오는 듯한 현의 울림에 귀를 기울였다. 연주자 한 명 한 명의 기량을 맘껏 엿볼 수 있었던 섬세한 솔로악구들과 피날레에서의 거대한 파도와 같이 밀려드는 소리들의 향연이 관객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동안의 연주에서는 감동의 여운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앵콜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연주에서는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와 요제프 스트라우스의 《오네 조르겐(Ohne Sorgen)》을 준비하였다. 숨죽여 말러를 듣던 관객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길 수 있는 멋진 시간이었다.

두 번째 연주는 12월 16일 대구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어린 학생들부터 중년의 부부까지 수많은 대구시민들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대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맘껏 즐길 관객들은 너무 잘 한다고 감탄을 연발하며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세 번째 연주는 12월 17일 전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었다. 연이은 이동으로 지쳤을 법도 하지만 연주자들은 최고의 기량을 뽐내었고 가장 열띤 환호와 기립박수를 받았다. 특히 클래식과 가깝지 않은 일반대중에게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말러였음에도 한 여성 관객은 소름이 돋았다며 팔을 쓸어 내렸다. 특히 이 날의 앵콜 《오네 조르겐》은 ‘하하하’를 같이 외치자고 관객들을 유도하던 임현정 교수의 노련함과 자리에서 일어나 ‘하하하’를 외치던 연주자들의 재기 발랄함이 돋보였다. 관객과 연주자들이 하나가 되어 새해를 걱정 없이 기쁨으로 맞이하길 염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고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최고의 연주를 보여주며 다시 한 번 최고의 대학 오케스트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졌다. 또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접하기 힘든 대구와 전주의 시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을 안겨주었다.

장아름(작곡과 작곡전공 석사과정)



협주곡의 밤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SNU Philharmonic Orchestra Regular Concert

The regular concer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hilharmonic Orchestra was held with the theme of "Concerto Night" on December 12, 2013 at the Concert Hal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s Center. The "Concerto Night" lived up to its title by featuring best performers majoring in Oboe, Clarinet, Marimba, Flute, and various others. Musical pieces including W. A. Mozart's <The Magic Flute, K. 620>, <Oboe Concerto in C Major K. 314 >, Debussy's <Rhapsody for Clarinet and Orchestra>, Emmanuel Sejourne's <Concerto for Marimba>, Kwang-Hyun Kim's arrangement piece <Chung-Sung Gok for Daegum and Orchestra>, and Carl Reinecke's <Flute Concerto in D Major, Op.283 > were performed.

'협주곡의 밤'이 주제였던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12월 12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날은 '협주곡의 밤'답게 다양한 전공의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첫 곡으로는 본격적인 협연 무대가 시작되기 전 김준영(지휘·13)의 지휘로 모차르트 《마술피리 서곡 K.620》이 연주되었다. 좋은 분위기 속에 계속해서 김준영의 지휘로 모차르트 《오보에협주곡 다장조 K.314》를 이광일(오보에·11)이 협연하였다. 이광일 학생은 섬세한 프레이징의 처리와 청아한 음색으로 차분하면서도 색깔 있는 연주를 선보였다. 이어진 무대는 드뷔시 《클라리넷과 관현악을 위한 랩소디》로 강석원(클라리넷·10)의 협연과 김영랑(지휘·석사)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다채로운 음향이 인상적이었던 이 곡에서 강석원 학생은 드뷔시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맑고 정교한 소리로 표현하였다. 2부에서는 김덕기 교수의 지휘와 강수진(타악·11)의 협연으로 연주가 시작되었다. 세조네 《마림바협주곡》을 연주한 강수진 학

생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마림바의 멋진 카덴차를 주고 받으며 1악장에서는 서정적인 매력을, 2악장에서는 에너지 넘치는 연주를 보여주었다. 이날 공연의 유일한 국악이었던 《대금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청성곡》은 박명규(대금·10)의 협연과 채길룡(국악지휘·석사)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서울대학교 지휘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광현이 편곡한 이 곡은 박명규 학생의 대금 특유의 청의 울림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만나 절묘한 화음으로 탄생하였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라장조 Op.283》는 김예성(플루트·10)의 협연과 김영랑의 지휘로 연주되었으며, 김예성 학생은 각 악장마다의 독특한 특색을 낭만적인 소리로 표현하였다. 이번 공연은 저마다 뛰어난 기량으로 최고의 감동과 다양한 하모니의 즐거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며 큰 박수 속에 막을 내렸다.



새해를 여는 힘찬 바람

관악 오케스트라 교외연주회

SNU Wind Ensemble

On January 9th, "2014 Seoul Arts Center 11 a.m. Concert (accompanied by Hanhwa Life Insurance Co.)" was held at the Seoul Arts Center with SNU Wind Ensemble's performance. Under the conducting of Prof. Young-Yul Kim, SNU Wind Ensemble performed the overture of Wagner's opera <Tannhauser>, Sarasate's <Zigeunerweisen Op. 20>, Gandolfi's <Vientos y Tangos>, 'Grand March' from Verdi's opera <Aida>, <Sing-Along Medley> arranged by Ye-Kyung Jeong, <Sinfonietta> by Janacek. The program of the concerto was enriched much more by Violin accompaniment of Prof. Ju-Young Baek from the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and Professor Chor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erformance received much applause for awesome performance and repertoire.

지난 1월 9일 예술의전당과 한화생명이 함께 기획하여 선보이고 있는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11시 콘서트'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SNU 윈드 앙상블의 연주로 열렸다. 이 공연은 예술의 전당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써 매월 둘째 목요일에 열리며 첼리스트 송영훈의 자상하고 섬세한 해설이 함께 곁들여진 클래식 공연이다. 대중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쉽게 즐길 수 있어 매 연주 때마다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14년 첫 무대는 김영률 교수의 지휘아래 SNU 윈드 앙상블의 연주로 막이 올랐다. 윈드 앙상블이 선보인 첫 곡은 바로 바그너 오페라의 《탄호이저》 서곡이다. 서곡으로 대단히 유명한 이 곡을 아주 웅장하고 장중하게 연주하며 연주회의 시작을 알렸다. 두 번째 곡으로는 기악과 백주영 교수의 협연으로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 Op.20》이 연주되었다. 이 곡은 기교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화려하며 예술적으로 세련된 정열을 담아 그대로 관객들에게 선사하며 큰 감동을 전해 주었다. 1부 마지막 곡은 간돌피의 《Vientos y Tangos》가 연주되었다. 평소 연주회에서 잘 들을 수 없었던 이번 곡은 멩고의 매력적인 격정적인 감성과 강렬한 리듬으로 관객들을 사로 잡으며 1부를 마무리하였다. 휴식 후 이어진 2부 무대의 첫 시작은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 행진곡"으로 웅장하면서도 힘차게 시작하였다. 그 후

이어진 무대는 정예경 편곡의 《Sing-Along Medley》로 가요 메들리를 서울대학교 교수합창단과 함께 들려주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봤을 법한 가요를 편곡하여 들려준 이 무대는 관객 들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으며, 음악 안에서 관객과 연주자가 모두 하나 된 무대였다. 다음으로 마지막 연주를 장식한 곡은 야나체크의 《신포니에타》이다. 1악장부터 군악대의 팡파레 풍으로 시작하는 곡으로 마지막까지 힘찬 연주를 통해 관객들의 흥을 돋구었으며, 어려운 리듬과 색다른 음색이 요구되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며, 큰 박수와 호응 속에 연주회를 마쳤다. 이번 연주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함께 김영률 교수의 뛰어난 곡 해석으로 청중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윈드 앙상블은 관악기 특유의 유려한 사운드와 뛰어난 하모니를 자랑하며 배우는 과정에 학생들의 무대에서 기대하기 힘든 완성도 있고 수준 높은 연주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매번 연주 때마다 음악적 성숙을 이끌어 낼 뿐 아니라 국내 관악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윈드 앙상블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실내악의 향연 Spirit of SNU Strings III

Spirit of SNU Strings III

The third concert of Spirit of SNU Strings was staged on November 17th, 2013 in IBK Chamber Hall of the Seoul Arts Center. The concert satisfactorily fulfilled its motto 'True meaning of Ensemble' with beautiful performance of Beethoven's <String Quartet No.9 in C major, Op.59-3 "Rasumovsky No.3">, Schumann's <Piano Quintet Op. 47>, and Tchaikovsky's <Souvenir De Florence in D Minor Op.70>. Korea's best musicians participated as performers of this concert; faculty members of the string major of the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ike Chung sim Baik (Cello/Dept. of Instrumental Music), Ensik Choi (Viola/Dept. of Instrumental Music), and Kyung Sun Lee(Violin/Dept. of Instrumental Music) and finalists from student chamber music audition. Audience of the concert was able to experience and enjoy Korea's best chamber music.



지난 11월 17일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Spirit of SNU Strings III 음악회가 열렸다. 이 음악회는 1993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악전공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발전기금을 바탕으로 장학금 지원 및 유명 아티스트 초청 마스터클래스 개최 등과 더불어 학생들의 연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다. 특히 현악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는 실내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Spirit of SNU Strings III 연주회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이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악전공 교수진인 백청심(기악과·첼로), 최은식(기악과·비올라), 이경선(기악과·바이올린) 교수와 치열한 실내악 오디션에서 최종 선발된 학생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무대는 힘이 넘치는 구성력으로 '영웅 사중주곡'이라고도 불리는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제9번 "라주모프스키" Op.59-3》로 연주회의 시작을 힘차게 알렸다. '라주모프스키 사중주곡' 중 오늘 연주된 3번 곡은 거대하고 넓은 구성을 지닌 1번 그리고 내성적인 곡인 2번과 비교해 위의 두 가지 요소 사이의 긴장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주에는 김혜진(바이올린·11), 최여은(바이올린·11), 김지원(비올라·11), 허예은(첼로·11) 학생이 참여하였다.

다음 순서로는 정설영(피아노·11), 조민지(바이올린·11), 김규

리(비올라·11), 남유리나(첼로·12)학생이 연주한 슈만의 《피아노 5중주 Op.47》이 이어졌다. 이 곡은 슈만이 30일 안에 스케치를 끝내 매우 빠르게 작곡 되었으며 선율적 창의성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슈만 특유의 낭만을 생생하게 잘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주된 작품은 화성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던 차이코프스키의 《현악 6중주 Op.70 "플로렌스의 추억"》이었다. 이 작품은 차이코프스키가 1890년 이탈리아 플로렌스를 방문했을 때 스케치를 시작하여 같은 해 러시아에 돌아와 완성시킨 곡으로 러시아 민요 선율을 차용하여 내용적으로는 이탈리아보다 러시아적 체취가 강하다. 연주에는 이경선(기악과·바이올린), 최은식(기악과·비올라), 백청심(기악과·첼로) 교수와 하유나(바이올린·10), 박새록(비올라·10), 민서연(첼로·13) 학생이 화성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었다.

실내악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세계 정상급 수준의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Spirit of SNU Strings 음악회는 현악전공 교수들과 학생들의 최상의 연주력을 보여주었고 진정한 의미의 앙상블을 느끼게 해 주었다. 더불어 실내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난 감동 있는 무대였다.

SNU String Ensemble Regular Concert

On Nov 26, regular concert of SNU String Ensemble was held at the Concert Hal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s Center. Performed under the conduction of currently standing orchestra conductor of Seoul Arts High School, Kang-Hoon Kim, the concert featured G. Faure's <Nocturne>, accompanied performance of G.C. Wagenseil's <Harp Concerto> by senior stud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hin-Young Yoo, P. Hindemith's <Minimax>, Grieg's <Two Elegiac Melodies for String Orchestra Op.34, 'The Last Spring'> and B. Bartok's <Romania Folk Dances> on stage.

현을 마주하는 감동 SNU 스트링 앙상블



지난 11월 26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SNU 스트링 앙상블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현재 서울예술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인 김강훈의 지휘로 이루어진 이 연주회는 포레(G.Faure)의 잔잔한 《녹턴》으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이어진 바겐자일(G.C.Wagenseil)의 《하프 협주곡》은 현재 서울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유신영 학생이 협연한 곡으로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궁정의 느낌을 자아내었다. 또한 오케스트라와 협연자가 마치 대화를 주고받는 듯해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뒤로 힌데미트(P.Hindemith)의 《미니막스Minimax》가 이어졌다. 목가적인 분위기로 시작된 이 곡은 힘찬 리듬과 함께 전반부를 화려하게 마무리하였다. 후반부에 지난날을 회상하는 추억에 잠긴 느낌의 그리그(Grieg)의 《두 개의 슬픈 선율 제2번 Op.34, "마지막 봄"》과 신비롭고 웅장한 느낌인 바르톡(B.Bartok)의 《루마니아 민속무곡》이 연주되었다. 이 두 곡으로 하여금 애잔함과 강렬함의 대조를 느낄 수 있었다. 다채로운 곡들이 전해준 색다른 감동과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끝으로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Regular Concert of Graduate School of Department of Korean Music

The Second regular concert of Graduate School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of the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held on December 31st, the last day of 2013 at the Mozart Hall. The Concert was composed of younger students who were major in composition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of the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cert was awesome an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ncert is the opportunity that shows the result of principle of education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한국음악의 명맥을 잇다 국악과 대학원 정기연주회



2013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모차르트홀에서 서울대학교 국악과 대학원 제2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작고하신 이성천 교수님의 음악세계를 주제로 했던 제1회 정기연주회에 이어 올해 열린 이 연주회는 그 후학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 국악과 작곡전공 출신들의 곡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연주회의 첫 곡은 현재 서울대 국악과 작곡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김승근의 <대금, 해금, 가야금과 거문고를 위한 4중주>였다. 다음으로 현재 서울대 국악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현주의 <가곡소품 I : 4인의 주자를 위한 '바람은'>이 연주되었고, 현재 서울대 국악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보현의 <아리랑 수수께끼>가 그 뒤를 이었다. 대학원 재학생들의 곡에 이어, 서울대 국악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김일종의 <이별가>와 채길룡의 지휘아래 학부 작곡전공 졸업생 양승환의 <신수양산가>가 연주되었다. 끝으로, 이승환의 지휘로 연주된 서울대 국악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신윤수(한양대 박사과정 졸업)의 <관현합주를 위한 '계면두꺼'>는 2013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었다. 이 연주회는 독창적이고 학구적인 연주자, 학자와 작곡가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교육이념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리이자 그러한 교육방침의 결실을 보여주는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훌륭했다.



뛰어난 기량으로 빛어낸 우리소리의 아름다움' 국악과 정기연주회

Regular Concert of Department of Korean Music

The regular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of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held on November 12th, 2013 Yeakdang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Performed programs of the concert include <Daechwita(Military Band Music)>, <Sanjo(Free-style Solo Music)> for Gayagum by Byung-Ho Kim>, premiere of a commissioned piece <A Wood Greatly Lush>, <Taepyeong-Ga (A Song of Peace)>, premiere of <Ya-ya>(the concerto for Arirang), Daegum Concerto <Melting Glacier>, Symphony <Sangsangsang>. This performance exhibited much-improved talents and ability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through diverse and carefully-selected repertoires and excelling performance of the participating musicians, and thus ended with great success, leaving behind mind-touching impression.

지난 11월 12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정기 연주회가 국립 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렸다. 관객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졌으며, 시작 전까지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통로에서 연주를 관람하는 등 국악과 정기 연주회에 대해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1부는 행진곡풍의 웅대한 곡인 행악 《대취타》로 서막을 힘차게 올렸다. 이어 두 번째 곡으로는 기악독주곡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가 연주되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는 차분한 진양조부터 다양한 리듬의 엮모리까지 다채로운 가야금의 소리를 들려주었다. 다음으로 이번에 위촉 초연된 작품인 현악합주곡 《대단히 울창한 숲》은 서울대 국악과의 고(故) 이성천 선생님을 기리기 위하여 만든 작품으로 곡의 초반에 이성천 선생님의 모음곡인 《숲속의 이야기》 중 ‘초동과 뺨꾸기’와 ‘빗방울의 춤’의 모티브가 부분적으로 등장한다. 가야금, 거문고의 타악기적 효과가 특징적인데 이는 사계절의 변화, 반짝이는 하늘, 강인한 땅, 그리고 생명의 숨소리와 에너지 등을 연상케 했다. 네 번째 순서로 전통가곡 《태평가》가 연주되었다. 태평가는 남창과 여창이 함께 부르는 가곡 한 바탕의 마지막 곡인데, 각각의 선율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점이 이 곡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선율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현악반주와 잘 어울려져 조화로운 음향을 내며 관객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다. 1부의 마지막 곡은 민속악합주 《진도씻김굿》이다. ‘진도씻김굿’이란 천도의식으로 예술적 완성도와 연희성이 뛰어나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

정받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특별하게 춤과 의식은 생략하고 음악적으로 구성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진도씻김굿’을 느끼도록 하였다.

2부는 아리랑을 위한 합주곡 《야야(爺爺)》로 시작되었는데 이 작품 역시 위촉 초연되었다. 아리랑은 언제부터 불려진 노래인지에 대한 정설이 없으나 우리 민족의 정서를 아주 잘 담고 있다. 이 곡은 여러 아리랑의 가락을 모아 현행하는 전통음악의 연주형식에 잇대어 본 곡으로 아리랑 선율이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전해져 왔다는 가정에서 나온 곡이다. 이어 연주된 대금 협주곡인 《녹아내리는 빙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빙하가 녹아내려 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장면을 음악적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번 정기 연주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관현악 《상상상(上商相)》은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음악과 관계가 깊었던 세 가지의 ‘상’을 표현한 작품으로 국악기로 빛어낼 수 있는 서양적인 음향을 연출하였는데 이는 서양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면을 동양적인 분위기로 자아내어 미묘한 혼합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제 55회 국악 정기연주회는 학생들의 발전된 기량이 특히 돋보였으며, 특히 다양한 레퍼토리를 관객들에게 선사하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렇게 큰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매번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국악과 정기연주회의 다음 정기 공연이 기다려진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동문음악회



The 9th Alumni Concert of the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9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Concert celebrating 118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ts 76th anniversary of integration was held on October 12, 2013 at the grand auditorium of the Cultural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concert, a wide array of music majors including the wind and string ensembles, piano ensemble, massive range of Korean music, and choral music were performed on one stage. Many alumni of College of Music have been performing actively on domestic music missions as well as on the world stage in enhancing the hon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Music. We hope for the continued prominence of our alumni, and look forward to hosting an equally brilliant Alumni Concert for the next anniversary.



총동창회 회장 신수정



개학 118주년과 통합개교 67주년을 기념한 제 9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문 연주회가 10월 12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창회가 주최한 이번 동문 연주회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인데 그 동안 연주회가 열린 예술의전당이 아닌 교내인 관악 캠퍼스를 무대로 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연주회였다. 김승근, 김영률, 윤현주, 임재원, 주희성, 최경환 교수를 비롯해 12회(1962년 졸업)부터 가장 최근인 63회(2013년 졸업)까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많은 음악인들이 준비한 이번 무대는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했다. 윈드 앙상블과 현악 앙상블부터 피아노와 타악기 앙상블, 4대의 피아노 무대, 그리고 대규모 국악곡인 함녕지곡과 판소리, 가야금 무대와 마지막을 장식한 합창까지 모든 전공을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동문 연주회를 개최하고 연주회의 진행을 맡은 음악대학 동창회 회장 신수정(13회 기약)은 “음악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외로운 작업이기에 동문간의 결속은 쉽지 않지만 또 이렇게 함께 만드는 음악은 다른 어떤 대화보다도 우리들을 더욱 깊이 하나로 묶어준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동창회의 진정한 의미인 친목과 모교 사랑을 되새기는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연주회의 개최 소감을 전했다. 그동안 배출된 많은 음악대학의 동문들은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 역사의 주축을 이루어왔고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명예를 높여 왔다. 앞으로도 동문들의 활약과 더불어 그에 빛나는 동문 연주회의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본다.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울림 STUDIO 2021



STUDIO I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5중주),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피아니스트 권민경, 비올리스트 김상진, 첼리스트 이강호)

STUDIO 2021

<STUDIO 2021> sponsored and hosted by the Department of Composition of the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past several years, as befitting its subtitle 'New Music Series', has made an effort to introduce Modern/Contemporary music that are hard to encounter in ordinary concert halls and repertoires. In 2013, <STUDIO 2021> mainly dealt with Mid-Late 20th Century Russian and Eastern-European composers like Shostakovich, Schnittke, Gubaidulina, and Arvo Part and their music.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서 주관하여 지난 수년간 개최해 온 <STUDIO 2021>은 SNU New Music Series라는 부제에 걸맞게 일반 연주회장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현대음악 작품들을 소개해 왔다. 현대음악을 기조로 하는 음악회들은 이제 서울시향의 Ars Nova나 TIMF 앙상블처럼 지명도 있는 연주 단체들이나 그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지만, 이처럼 전문 단체 및 관련 기획에 힘입지 않을 경우 일반 청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린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STUDIO 2021>을 통해 제공된 음악회들은 그 개별적인 평가 여부를 떠나서 학교 차원에서 준비되는 현대음악 관련 행사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나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2013년 9월 16일의 첫 무대를 시작으로 11월 11일 마지막 일정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STUDIO 2021>은 총 다섯 번의 연주회와 두 번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이 글은 이들 <STUDIO 2021> 행사 전반을 정리하는 리뷰 성격의 글로, 각각의 연주회와 특강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기보다는 음악회 전반에서 돋보였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2013년의 <STUDIO 2021>은 (비록 특정한 “표제”를 행사 전반에 부각시키지는 않았지만) 쇼스타코비치와 슈니트케, 구바

이둘리나, 펜데레츠키, 아르보 파트와 같은 20세기 중후반의 러시아 및 동유럽 작곡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주로 다루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음악학자 서정은의 기조 강연이 이들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이해의 길잡이를 제공해 주었다. (9월 30일 특강, “예술가의 창작, 옛 것과 새 것, 그리고 개인과 사회: 현대 동유럽 작곡가들의 경우”) 이제는 러시아와 여러 국가들로 분리 독립한 옛 소련 지역 출신으로, 20세기 중후반에 걸쳐 (몇몇 생존 작곡가들은 지금까지) 음악 활동을 지속해온 위대한 작곡가들이 예술조차 통제 대상으로 두었던 정치와 이념 과잉의 냉전 시기에 어떻게 개인으로서의 생존과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유럽의 모더니즘의 영향권에서 일정 부분 떨어져 있었기에 그들의 작품이 음악적으로는 서구의 급진적 흐름과는 어떻게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지에 대해, 서정은의 기조 강연은 작곡가들과 작품을 둘러싼 위와 같은 복잡다단한 음악적/음악외적 양상을 크게는 시대적인 조망과 더불어 작가는 개별 작품들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전반적으로 이들 옛 소련 및 동구권 출신 작곡가들의 작품은 (서울대 작곡과 학생들의 작품 연주 중심으로 진행된) <STUDIO IV> (11월 4일) 연주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네 번의 음악회에 고루 분포되어 올래 <STUDIO 2021>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특강에서 언급된 이들 작곡가들의 특정한 측면들(이들 작품의 정치적 사회적 함의, 일부 음악들에 부각되는 종교적 특성, 시기적으로는 현대 음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난해



STUDIO I (Robert Aldridge 특강)



STUDIO III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5번>, 연주: 피아니스트 최희연, 바이올리니스트 올프 발린, 첼리스트 벤신양, 퍼커셔니스트 최경환 외)

하게 여겨지는 이들 음악의 수용적 측면 등)이 올해 <STUDIO 2021>의 실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음악적으로는 그다지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주기도 하였다.

더불어 이번 <STUDIO 2021>에는 현재 생존해 있는 (그리고 여전히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두 명의 미국 작곡가들(로버트 알드리지, 네드 로렐)의 작품이 연주되었는데, 특히 이들 중 한 명인 로버트 알드리지 미국 럿거스대 교수의 음악 세계에 대한 작곡가 자신의 특강이 9월 16일 다른 하나의 특강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특강의 내용과 음악회에서 연주된 일부 작품만으로 내리키에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지만, 이번 <STUDIO 2021>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동유럽 출신 작곡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 작곡가들의 음악적 성향 및 작품 창작 과정에서 취하는 음악에 대한 태도는 소재 및 이를 활용한 어법의 적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느껴지거나, 당대의 특정 사조 및 음악적 흐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오늘날 유럽과 함께 세계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이 현대음악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면, 러시아와 동유럽 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추후 <STUDIO 2021>에서도 미국 출신 작곡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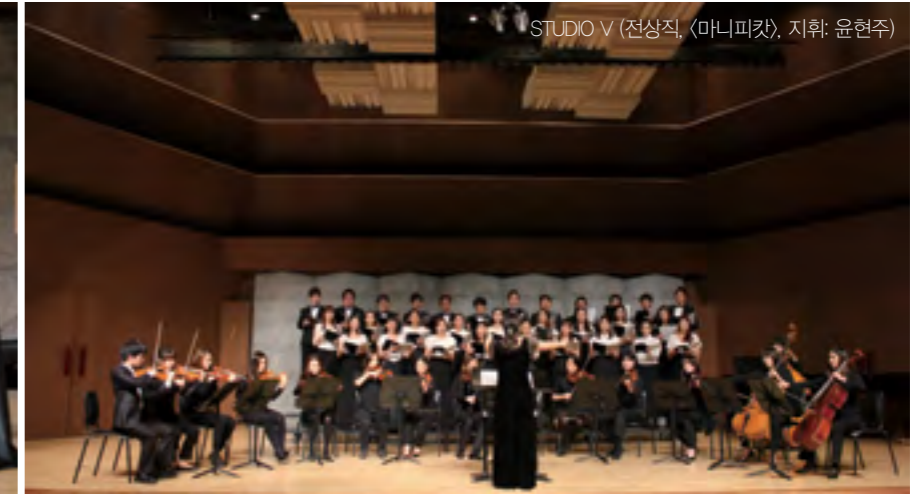
한편으로 올해 <STUDIO 2021>에서 사뭇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서울대학교 작곡과에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였던 만큼) 작곡 전공 학생들 작품의 연주 기회를 마련한 것이었다. 실제로 올해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생 작품이 연주회 정식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되었고, (10월 2일 <STUDIO III>에서 연주된 송낙호의 작품 “Tong Twee Rong for piano trio”) 더 나아가 11월 4일의 <STUDIO IV> 연주회에서는 재학 중인 4명의 작곡과 학생들과 이들의 작품을 연주한 기악과 학생들의 무대가 별도로 마련되었다. 특히 후자의 11월 4일 연주는 작곡과 학생들의 작품들 뿐 아니라, 이들 창작 작품을 연주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학

생 연주자들의 뛰어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창작 작품들은 일반 연주회의 표준적인 레파토리가 아니기에 청중은 물론이고 연주자의 입장에서도 낯설고 어려운 대상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이날은 창작곡 연주를 통해서 연주자가 자신의 연주 역량을 인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연주회에 참여했던 작곡전공 석사과정 유용재 학생의 소감이다.

“지난 11월 4일에 있었던 STUDIO IV(Virtuoso Concert)는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바도 많고, 스스로 많이 성장할 수 있던 것 같아 저에게 뜻 깊은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날의 연주는 Flute, Violin, Cello, Piano 네 명의 연주자들이 각각 2~3개의 virtuoso piece들을 연주하는 형태였고, 그 프로그램 안에 저를 비롯한 학생 작곡가들의 신작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곡가로서 참여하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종래의 작품공모 방식이 아닌, 작곡가와 연주자가 협업하여 곡을 완성하고 연주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연주자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수정하면서 진행되었던 점입니다. 예전에는 작곡과정이나 선지 위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실제적인 점(어느 것이 연주하기 어려운지, 어느 것이 소리가 효과적인지 등)을 더 많이 고려하며 작곡할 수 있어 좋았고, 곡을 볼 때에 연주자의 주안점은 무엇인지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STUDIO 2021 음악감독이신 이신우 교수님, 최희연 교수님께서 리허설 코칭 때 보다 성공적인 연주를 위해 다각적으로 많이 가르쳐주시고 신경써주셔서 배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가장 흡족했던 건 제 곡이 무사히 연주될 수 있던 것뿐만 아니라, 동시대 신작들과 여러 고전 virtuoso piece들이 함께 연주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전공자들이 아닌 가족, 지인 분들도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음악만 연주되는 연주회는 지인들을 초대하기가 머뭇거리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런 연주회는 전공자 아닌 일반인들을 초대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TUDIO IV (학생 비르투오조 공연)



STUDIO V (전상직, <마니피캣>, 지휘: 윤현주)

작년부터 STUDIO 2021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며 느낀 바로는 이신우 교수님, 최희연 교수님, 작곡과 교수님들과 조교들이 STUDIO 2021의 음악적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웬만한 전문공연장에서도 보기 힘든 양질의 공연들이 이 STUDIO 2021을 통해 올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내뿐 아니라 외부에도 많이 알려져 대한민국 음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현대음악시리즈로 맥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STUDIO 2021>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내외의 여러 뛰어난 연주자들의 참여와 다양한 편성의 작품들의 연주였다. 최희연(피아노), 이경선(바이올린), 김상진(비올라), 이강호(첼로) 등의 국내 대학 교수진들 외에도 권민경 럿거스대 교수(피아노), Wen-Sinn Yang 뮌헨음대 교수(첼로), Ulf Wallin 한스 아이슬러 음대 교수(바이올린) 등 개별 연주자들의 면면도 화려했지만, 무엇보다 이들을 포함한 여러 연주자들의 훌륭한 연주를 통해 현대음악 레파토리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청중의 입장에서도 고무적인 경험이었다. 더불어 일반적인 클래식 공연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편성의 연주들도 이목을 끌만한 부분이었다. 3대의 기타와 첼로, 더블베이스의 편성으로 외국에서도 2009년에 초연되어 비교적 최근작에 속하는 구바이둘리나의 <Repentance>는 한국 초연의 의미를 넘어서는 호연을 선보였고,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그리고 13대의 타악기를 위한 작품으로 편곡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5번 연주는 여러 타악기들의 다양한 음색과 효과가 어우러지면서 오케스트라 연주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작품의 다양한 해석적 측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특히 <STUDIO 2021>의 마지막 무대인 11월 11일 공연에서는 정년을 앞둔 성악과 윤현주 교수의 지휘로 여러 독창자들과 SNU New Music 앙상블 및 합창단의 연주가 있었는데, 성악 앙상블과 합창, 그리고 타악기와 현악 앙상블의 편성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제공했다. 이날 연주된 곡들은 페르골레지에서 아르보 파트트, 그리고 정태봉과 전상직의 작품까지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레파토리들로, <스타바트 마테르>(페르골리지)나 <마니피캣>(전상직), <상투스 & 베네딕투스>(벤데레츠키)와 같은 작품의 종교적인 뉘앙스를 전달하면서도 음악적인 짜임새와 어법의 측면에서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울림을 들려주었기에 두 달여에 걸친 <STUDIO 2021>의 행사를 마무리하는 음악회로도 손색이 없었다.

필자는 올해 <STUDIO 2021> 프로그램 노트 일부의 작성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교 차원에서 이렇듯이 현대음악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쏟는 노력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STUDIO 2021> 음악 감독인 작곡과 이신우 교수가 첫 음악회에서 전한 인사말의 내용에 포함된 <STUDIO 2021>의 기획 의도가 인상적이었는데, 그 기획 의도란 (비록 <STUDIO 2021>이 현대음악 연주를 위해 작곡과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준비과정에서부터 연주자와 협의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기초와 세부 작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학자의 역할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가급적 음악대학 전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현대음악 행사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지금껏 현대음악이란, 연주가 중심인 우리나라 음악계의 사정상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작곡(가)의 영역에 국한된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해왔던 것처럼 보인다. <STUDIO 2021>의 지향점이 작게는 음악대학의 구성원들, 넓게는 서울대의 다양한 관련 학과와 전공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점에서 올해 <STUDIO 2021>의 시도는 의미 있는 시도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상호 (협동과정 서양음악학박사과정 수료)

꿈과 희망의 음악

서울특별시 교육청-서울대 음대 협력 사제동행 “행복나눔 콘서트”



지난 10월 29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사제동행 행복 나눔 콘서트가 열렸다. 이 콘서트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서울대학교가 맺은 업무 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김영률 음악대학 학장의 지휘, Rrichert Aviram 기악과 교수의 피아노 연주와 남성 중창단의 협연으로 큰 호응을 얻은 첫 번째 공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공연은 도니체티(G. Donizetti)의 희극 오페라 《돈 파스칼레》의 주요 장면으로, 김덕기 교수의 지휘, SNU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서울대 오페라연구소 학생들의 공연 그리고 김영랑(지휘·석사)의 해설로 이루어 졌다. 이들은 모두 최고의 기량을 펼치며 멋진 무대를 펼쳤다.

김영률 음악대학 학장과 함께 이 콘서트를 기획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서정석 장학사는 “사제동행 행복 나눔 콘서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순수한 교육기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교사,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공연 관람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며 이 콘서트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콘서트에는 81개 중, 고등학교에서 총 813명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석하였고, 학부모님, 교육청 관계자까지 합치면 총 93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평소 오페라라는 장르를 접하기가 쉽지 않아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해설과 함께 모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멋진 공연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공연을 관람한 면목중학교 교사 유소양은 “연주자들의 성의 있는 공연과 학생들의 열띤 호응으로 사제가 함께하는 행복한 콘서트였으며, 더 많은 학생을 데리고 오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라며 행복감과 아쉬움을 동시에 나타냈다.

또 원목고등학교 교사 송지연은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남기며 사진도 찍고, 돌아가는 길에 인상 깊었던 것이나 느낌을 물었는데, 문화공연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 처음 음악회를 접하며 다양한 악기에 매료된 학생 등 저마다 행복한 추억을 심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라며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서울대학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정석 장학사는 “귀중한 음악회를 마련해 주신 오연천 총장님과 콘서트를 기획해 주신 음악대학 김영률 학장님, 지휘를 맡아주신 김덕기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출연자 및 오케스트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순수한 교육기부로 이루어진 이 콘서트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관람하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장이 되기에 충분했다. 공연하는 모든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관객들에게 행복을 선사하였고, 관객들은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이렇게 모두에게 행복을 나누어준 콘서트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On October 29, Sharing Happiness Concert was held at the grand auditorium of the Cultural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concert was held according to the convention signed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March of this year. Professors and students of the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volunteered their efforts at the concert in order to provide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culture and arts, as well as to increase participation and professionalism of cultural arts through concert performances. The program for this concert was the main scenes from G. Donizetti’s Opera Comedia <Don Pasquale>with conducting of Professor Docki Kim, SNU Philharmonic Orchestra’s performance, and performance exposition of students from the Opera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haring Happiness Concert” Held by the Collaborative Efforts of Seoul School Board and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예술로 하나되는 꿈과 희망의 축제

제3회 전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Student Orchestra Festival

The 3rd National Student Orchestra Festival was successfully held from November 12th to 14th 2013, for 3 days, at Cultural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midst of heartfelt interest and love of many people. Student Orchestra Project began in 2011 as a part of In-School Fine Arts Education Projec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attempt to ensure and enrich fine arts education within the school curricula through offering equal opportunities to students to develop extracurricular ability and creativity through in-school musical experience and educational mind.



지난 2013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는 '2013 제3회 전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이 많은 이들의 찬사와 사랑 속에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2011년 교육부 학교예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은 학교 내 음악적 경험과 교육적 마인드에 기반을 두고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과 특기적성 계발의 고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 내 예술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시작되어 첫째에 65개교, 2012년 상반기 85개교, 하반기 150개교, 그리고 2013년 100개교를 선정하여 총 400개교에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교내 외 지역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2013년 3회차를 맞이하며 서로간의 교류와 화합의 기회를 마음껏 즐기는 장이자, 예술로 하나되는 꿈과 희망의 축제로 거듭났다는 호평을 받았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시작된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한 울림으로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률 음악대학장은 지난 2013년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을 추진하며 시행착오도 거쳤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전국적인 큰 규모의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불과 3년의 짧은 역사에도 학생들의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향상됐음을 느꼈고요. 참가학교 하나 하나가 마치 예술의전당에서 매년 개최되는 교향악축제에 참가하는 오케스트라를 연상케 할 만큼 열의가 있었기에 2013년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더욱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독주나 실내악에 비해 단원들의 화합과 서로를 위하는 배려가 더 크게 필요한 만큼, 학생들도 학교에서 일반 수업 시간에 받는 교육 이외의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그는, 이러한 음악에 대한 열의가 학업에도 더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이번 사업의 파급효과도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 제3회 전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경기운암중·경북구미전자공고의 연합오케스트라와 김덕수 사물놀이단의 협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서울대 오연천 총장의 환영사, 교육부 나승일 차관의 축사로 이어졌으며, 김영률 음악대학장의 지휘로 서울대학교 윈드앙상블의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으로 멋진 축하무대를 선사하였다. 행사 기간 동안 1~4부로 나뉘어 참가 학교들의 공연이 펼쳐졌고, 폐막식에서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전상직 교수가 학생들에게 맞게 편곡한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김덕기 교수의 지휘에 맞춰 2,500여명의 참가학교 연합공연으로 본부 앞 잔디광장에서 더욱 뜻 깊은 마무리를 하였다.

그 밖에도 문화관 전시실과 중강당 그리고 야외부스에서 예술동아리의 전시, 강연 및 발표회와 특별공연 등이 있었고,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카툰캠퍼스의 캐리커처 그리기, 카툰 월, 3D 입체캐릭터 만들기, 목각 관절인형 & 마트로시카 캐릭터 만들기, 만화 체험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전국에서 모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선사

했다. 또한 이들이 2박 3일 동안 숙박했던 용인 양지파인리조트 숙소에서 파트연습 및 리허설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매일 저녁 클래식 음악 영화상영과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행사에도 함께 동참하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값진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이번 페스티벌을 기획하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나 밴드 등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접해보고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며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을 배우거든요." 악기를 배우고 함께 연주하는 경험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합주를 통해 협동심도 생기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에 대한 해결책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김영률 음악대학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을 통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됐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전공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진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에 자신도 놀랐다는 그는, 오케스트라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도교사가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 만큼, 그리고 그들이 추운 야외에서 학생들과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싶다고 하였다. "지도교사야말로 일선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인 만큼 그들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열의에도 감동 받았고요. 사업단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 교육적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3 제3회 전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그동안의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예술 안에서 하나되는 어울림을 통해 우리나라 예술교육이 또 한 걸음 성장하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는 김영률 음악대학장은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학생오케스트라를 응원해 준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덧붙였다.

신혜진(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



관악구민과 함께하는 화요음악회



1994년 '수요음악회'의 명칭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관할 구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예술 공연 행사로 음악회를 통해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들의 연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동·서양의 음악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관객들로 하여금 음악을 보다 친숙하고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2013년 2학기 화요음악회는 10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모두 5차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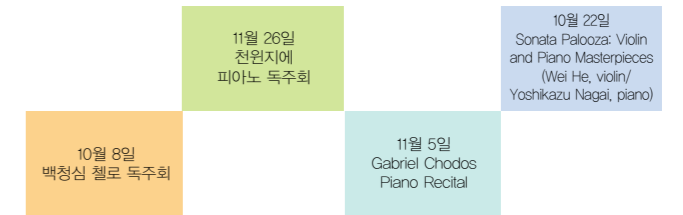
10월 8일 첫 무대는 서울대 음대를 거쳐 벨기에 왕립음악원, 독일 레트폴트음악대,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의 저명한 첼리스트 앙드레나바라를 사사한 백청심 교수가 맡았다. 이날 공연은 베토벤(L.v. Beethoven)의 《“소녀 한 명이나 여인 한 명”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66》, 슈만(R.Schumann)의 《3개의 환상곡》, 피아졸라(A. Piazzola)의 《그랜드탱고》, 프랭크(C. Frank)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 장조》가 연주되어 관객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게 했다.

10월 22일은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어우러져 큰 감동을 선사했다. 섬세한 곡 해석과 카리스마 넘치는 공연으로 북미와 세계를 떠나며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웨이허(Wei He), 신선한 곡 해석과 드라마틱한 표현스타일로 찬사를 받는 피아니스트 요시카즈 나가이(Yoshikazu Nagai)가 협연했다. 스카를라티(D. Scarlatti)의 《소나타 D장조 K.96》의 2곡, 베토벤(L.v. Beethoven)의 《바

이올린 소나타 제5번 “봄”》, 프로코피예프(S. Prokofiev)의 《피아노 소나타 제3번 d단조 Op. 28》의 2곡이 연주되었다.

11월 5일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넘나들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해오고 있는 피아니스트 가브리엘 초도스(Gabriel Chodos)의 무대가 펼쳐졌다. 이날 슈베르트(F. Schubert)의 《알레그레토 C단조 D.915》, 《피아노 소나타 G장조 D.894》, 베토벤(L.v. Beethoven)의 《피아노 소나타 C단조 Op. 111》가 연주되었다.

11월 26일은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 및 세계 무대에서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우수한 음악성과 뛰어난 연주실력을 지닌 젊은 피아니스트 천원지에(Yunjie Chen)가 가을빛 피아노 무대를 펼쳤다. 하이든(J. Haydn)의 《피아노 소나타 C단조 Hob.16:20 Piano Sonata in C minor, Hob. 16:20》, 쇼팽(F. Chopin)의 《스케르초 4번 Op.54》, 리아프노프(S. Lyapunov)



의 《2 Etudes from Op.11, No.7 & 10》, 프로코피예프(S. Prokofiev)의 《피아노 소나타 7번 B♭ 장조 Op.84》가 연주되었다. 12월 3일 마지막 화요음악회는 본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오디션 우승팀 '트리오 에파이노스'(원요한, 이은새, 이강현), '소리울(이나연 외 8명)', '딜리스 콰르텟(민조현, 명다솜, 전민경, 박성진)'의 연주회로 막을 내렸다. '트리오 에파이노스'는 브람스(J. Brahms)의 《피아노 삼중주 1번 Op.81, 4악장》을, '딜리스 콰르텟'은 브람스(J. Brahms)의 《현악 4중주 2번 Op.51》을 연주해 멋진 선율을 들려주었다. '소리울'은 《가곡 평론》과 이를 재구성한 《복두칠성》으로 우리 소리의 멋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Tuesday Concerts

The Tuesday Concert Series of the second semester of 2013 successfully held its concerts with the contribution of many qualified and outstanding individuals and groups. The participating teams include Prof. Chung sim Baik, violin soloist Wei He, pianist Yoshikazu Nagai, pianist Gabriel Chodos, pianist Yunjie Chen and the winner of student audition. The Tuesday Concert Series of this semester was held five times, from October 8th to December 3rd in the Mid-Auditorium of the University Cultural Center at four o'clock.



희망과 감동의 음악 병원음악회

서울대 음대가 주관하고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병원음악회 시리즈는 매 학기 서울 보라매병원, 혜화동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세 곳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 음악회는 준비하는 이들과 관객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행복관 1층 아트리움에서 최은식 교수의 지도 아래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울음대 병원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프로그램은 월터스(H.L. Walters)의 《Instant Concert》, 푸치니의 《Nessun Dorma》, 베토벤의 《Serenade for flute, violin and viola Op.25》, 춘향가의 눈대목 《사랑가》, 정지용의 시에 노래를 붙인 《향수》를 비롯한 11곡으로, 아트리움을 가득 채운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사랑가》를 불러 큰 호응을 얻었던 신유진(판소리·12)학생은 “환자분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연주를 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뿌듯함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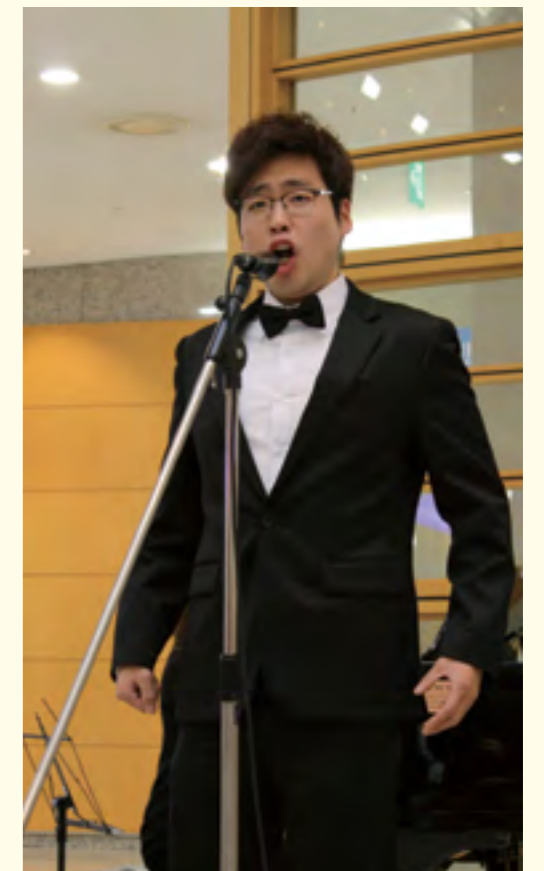
Hospital Concerts

The series of hospital concerts, administer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and managed by Planning and Advertisement, has proceeded for every semester at Seoul Borame Hospital, Hyehwa-d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Bund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concerts have become a positive method of communication for those preparing for the concert as well as its numerous audiences.



지난 12월 20일,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은 혜화동 서울대병원을 찾아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의 음악회는 특히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고려하여 암 병동과 본관 로비 두 곳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슈베르트(F. Schubert)의 《현악4중주 제13번 String Quartet No.13》,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테마곡인 슈타이너(M. Steiner)의 《Tara’s Theme》, 버트 메이어(Bert Mayer)의 《Mexican Folk-Medley》, 그리고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국악팀이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그린 《사랑가》를 열연했고, 3명의 테너로 이루어진 남성중창단이 펜스타드(E.A. Fenstad)의 《우정의 노래 Stein song》, 《향수》 등 잘 알려진 노래와 레하르(F. Lehar)의 《그대만이 유일한 내 사랑 (Dien ist mein ganzes herz)》, 푸치니(Giocomo Puccini)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 오페라 곡을 선사했다.

오랜 투병기간과 제한된 병실 생활로 인해 쇠약해진 환자와 그들을 간호하는 보호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에 작게나마 기쁨과 활력소를 얻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며 그 감동을 전했다. 클래식음악이 생소한 이들을 위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사회를 맡아 작품 해설을 하였으며, 연주가 진행됨에 따라 환자들의 굳었던 얼굴에 점점 웃음이 번지고 생기가 돋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동행했던 보호자들도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던 보람된 시간이었다.





정년퇴임교수 인터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기악과 백청심 교수**

**Interview of Prof.
Chung sim Baik**

Professor Chung sim Baik, who has strived for sincere music education at the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year 1981 is to retire this year. Professor Baik's career includes being a member of the Belgium Royal Symphony Orchestra, a Senior Cello of the Austria Vienna Lai Moon Theatre Orchestra, and a Senior Cello of the Gainesville Chamber Orchestra. As one of the strong supporters of cello in Korea, Professor Baik has performed and communicated with her disciples at the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a long time. Her incomparable love and concern for the students of SNU will be forever cherished in the hearts of many.



1981년부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에 힘써 왔던 백청심 교수는 올해로 정년퇴임을 맞게 되었다. 백청심 교수는 벨지움 국립 교향악단 단원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라이문트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 및 미국 플로리다 주의 게인즈빌 챔버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을 역임하였다. 문화공보부 주최 대한민국 음악제에서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연주활동을 시작한 백청심 교수는 최근 퇴임기념 독주회를 비롯해, 독일 라이프치히와 할레에서 열렸던 제자들로 구성된 SNU Celli Ensemble과의 연주회,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의 화요 음악회, 현악과 정기연주인 Spirit of SNU Strings에서의 실내악연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화요음악회는 재직하는 동안 여러 번 연주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관악구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을 위한 학교차원의 연주인 만큼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도록 노력하였고, 음악대학 교수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SNU Celli Ensemble, 현악과 학생들과 함께한 Spirit of SNU Strings에 대한 연주소감을 묻자 “교수와 학생이 음악적 소통을 함께 할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모든 음악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독주회와 다르게 실내악 연주는 연주자들이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음악적 처리와 소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서로 화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답했다. 오랜 시간 서울대학교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온 백청심 교수는 “처음 학교에 왔을때 만 해도 연주법과 정통한 음악적 해석을 전수하겠다는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적 소양을 갖추는 것 역시 얼마나 중요한 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음악을 통해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인내와 같은 기본적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백청심 교수는 서울대학교와 함께한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학생들과의 연주활동을 꼽았다. “2000년도에 시작한 SNU Celli Ensemble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구성으로 연주하는 매 순간들이 저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창단멤버들이 가족과 같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

다. 그런 제자들을 보며 흐뭇함을 느낍니다.” 또한 “학생들이 국내의 콩쿠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백청심 교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전공에 끊임없이 매진하며 후배들에 대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현재 음악계에는 젊은 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항상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의 깊이를 담아낼 수 있는 소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교에만 치중하는 연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초는 바로 소리를 찾는 작업입니다. 소리에서 자신의 모든 음악적인 느낌과 음악세계가 표현되기 때문에 기초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음악적 표현에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라며 기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임 후 계획에 대해 묻자 “이번 5월에 제자들이 기획하는 퇴임 기념 음악회가 있을 예정이고, 그 후로는 지금보다 더욱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자세로 연주와 인생을 즐길 계획입니다.”라며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삶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국 첼로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긴 세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제자들과 함께 연주하며 소통했던 진정한 교육자 백청심 교수, 학생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른 겨울의 찬바람이 불던 12월, 올해를 끝으로 정년퇴임을 하시는 윤현주 교수님을 만나 뵈었다. 따뜻한 허브 차와 함께 연구실 곳곳을 지키고 있는 아기자기한 인형들처럼 해맑은 미소로 맞아준 그녀는 퇴임을 앞두고 '감사'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그 동안 서울대학교라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었다는 것, 그리고 퇴임에 이르는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고 뿌듯합니다." 그녀는 올해 오페라 《돈 파스칼레》의 예술감독을 맡아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는데, 정년퇴임인 해를 오페라로 마무리하게 된 소감을 물었다. "오페라 연구소 예술감독을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나의 오페라라는 큰 작품을 만드는 작업이 참 보람되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두 달 전 오페라의 추억을 이렇게 회상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성악가로서, 교수로서, 오페라 음악감독으로서, 또 합창을 이끄는 지휘자로서 그런 열정의 원천은 무엇인지 물으니 그녀는 음악에 관해서는 스스로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에너지가 속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아주 어려서부터 저는 음악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음악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집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찾아 다니면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음악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연주가 있을 때면 저도 모르게 그런 열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렇겠죠." 음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음악과는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았다.

교수로 부임한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궁금해 하자 그녀는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었다. "92년도에 처음 학교에 임용이 된 해 첫 번째로 제가 짜릿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연주자로 활동을 하다가 교수로서는 본격적으로 첫 걸음이라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나'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첫 시간에 학생이 어떤 이태리 곡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제가 모르는 곡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긴장을 했죠. 그래도 음악적인 흐름이나 이해는 있으니

까 어떻게 해서 풀어갔어요. 나중에 그 제자한테 '사실 나 그때 너 가르친 곡 모르는 곡이었어.'라고 하니깐 학생들이 정말 그랬냐고 하며 깜짝 놀랐어요."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같은 상황이라면 여유 있게 넘어갈 그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이어서 그녀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선 몇 달 후에 오페라 오디션이 있었어요. 마술피리에 더블 캐스트였는데 선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맥락에서 열심히 가르쳤죠. 밤낮을 안 가리고 훈련을 했어요. 그랬는데 운 좋게 두 명이 다 제 제자가 된 거예요. 제가 오디션에서 뒤편 기억들 보다 훨씬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남네요." 그녀는 선생으로서 학생을 길러내고 학생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의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인터뷰 내내 느껴지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외롭고 고달픈 예술가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꿈을 잃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니 그녀는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해야 하고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올바른 삶의 목표를 무엇인지, 왜 내가 예술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더불어 성악과 학생들을 위해 노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물었다. "기술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발성이 최고예요. 인위적으로 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발성, 호흡에 실린 소리가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해요. 자연스러운 발성일 때 소리도 자연스럽게 커진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좋겠고 또한 악보대로 노래하는 습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악보에 있는 점 하나까지도 자세히 보고요. 악보대로 부르는 기본에서 출발하면 결국은 노래 잘하는 기초가 아닐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퇴임 후 계획을 묻자 그녀는 설레는 얼굴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퇴임하고 나서는 보통사람이 갖는 다양한 경험, 친구도 만나고 읽고 싶었던 책들도 차곡차곡 읽고 좋은 음악회도 다니고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직업과는 상관없이 나를 필요로 하는 후학들을 위해서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음악적인 경험과 재능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노래란 '내 삶의 진솔한 표현'이라는 윤현주 교수, 이제 학교 밖 또 다른 세계에서 만나게 될 그녀의 진솔한 표현들이 기대된다.



정년퇴임교수 인터뷰

순수한 열정의 여정 성악과 윤현주 교수

Interview of Professor Yun, Hyunjoo

Professor Yun, Hyunjoo who has strived towards providing the best education for the students of the College of Music of SNU since year 1992, is now in her retirement year. Professor Yun has established an active career in various fields of music as a vocalist, a professor, an opera music director and a conductor of chorus. Ahead of her retirement, Professor Yun confesses that "Gratitude" is the first word that comes to mind. To Professor Yun, music is "A genuine expression of life." We expect her genuine expressions to continue in the world outside of school following her retirement.

발전기금출연자 명단

(단위: 원)

출연자명	기금용도	납입금액	납입일자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학술연구시설등	15,000,000	2013.10.24
김규동	학술	200,000	2013.12.17
풍강산업(주)	학술연구시설등	500,000	2014.01.06
윤덕우 최덕자	학술연구시설등	40,000,000	2013.12.13
이돈응	학술연구시설등	400,000	2013.12.17
이신우	학술연구시설등	200,000	2013.12.17
최경환	시설물	400,000	2013.12.17
송경희	학술	400,000	2013.12.26
김미영	시설물	400,000	2013.12.27
최강산	학술연구시설등	80,000	2013.12.27
김금엽	학술	1,000,000	2013.10.01
(재)관악회	학술연구시설등	20,000,000	2013.10.10
김지윤	학술연구시설등	1,000,000	2013.10.21
음악대학	학술	54,934,000	2013.10.24
Aviram Reichert	학술	1,500,000	2013.12.12
변기수	학술연구시설등	1,000,000	2013.12.16
(주)상지인터내셔널	학술	10,000,000	2013.12.18
최고경영자과정총동창회	학술	30,000,000	2013.12.19
최병노	학술연구시설등	1,000,000	2013.12.20
김우경	학술연구시설등	1,000,000	2013.12.25

* 발전기금 참여안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 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1006-601-280134

•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홈페이지 www.snu.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유증 및 부동산 등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 음악대학 또는 특성학과를 지정해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소리를 찾아서

소리의 과학과 악기제작 체험 / 이돈웅 교수



Sound and Musical Instrument / Prof. Donoung Lee

November 25th was the second week into the instrument construction. Students were now busy assembling the parts and testing the sound of the instruments. To create their unique instruments, students first had to learn acoustics and science of sound over 7-8 weeks. After understanding fundamental principles of how instruments, winds, strings, percussions and keyboard instruments, sound, each student was required to submit a short proposal of instrument construction and finally began the instrument construction at the end of November. This class is strongly recommended for those who want to create their own instruments with their name engraved.



2013년 11월 25일 4시 수업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들은 아주 흐릿한 형체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악기들이었다. 악기들은 아직 외양만큼이나 다듬어지지 않은 소리를 냈다. 조금 더 둘러보자 풍선, 실, 빨대, 물, 휴지심 등의 다양한 생활용품들과 드릴, 칼 등의 공구들이 보였다. 보통 실내악 합주를 하곤 하는 55동 102호에서는 합주소리 대신 쓱쓱, 팡팡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쩌면 좋은 소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다.

필자가 수업을 찾아갔을 때는 11월 25일, 악기 제작 2주차에 접어든 날이었다. 학생들은 이제 막 재료들을 이리저리 맞춰보며 소리가 잘 나는지를 살펴보고 있었다. 일상적인 재료들이 악기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 악기 소리가 어떤지 좀 봐주세요!” 라고 묻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돈웅 교수는 “애 그거 소리 안나!”하고 껄껄 웃으셨다. 자신만의 악기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은 약 7~8주간 소리의 과학을 배웠다. 관악기와 현악기, 타악기와 건반악기 등 악기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원리를 배우고, 간단한 악기제작계획서를 작성한 뒤에 11월 말이 되어서야 악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악기제작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악기를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기도 어렵지만, 재료손질 자체도 쉽지 않다.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재료를 자르고 구멍을 뚫고, 이어 붙이는 일



Classroom

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위험하고 정확히 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악기제작상황을 보던 이돈웅 교수는 53동 1층의 전자음악실로 몇몇 학생들을 데리고 가셨다. 거기엔 음대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싶을 정도로 낯선 것들이 즐비했다. 대형 절단기부터 볼트 박스 6개, 센서와 전선이 잔뜩 달린 led, CD로 만들어진 설치작품 등. 이게 작곡과 교수의 작업실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기계공학자의 방이라고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어쩌면, 소리기계공학자의 방이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돈웅 교수는 그 비밀 창고 같은 작업실에서 필요한 재료를 구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이전에 교수님이 만들었던 악기를 분해해 주시기도 했다. 그리고 대형 절단기, 드릴 등 위험한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들을 모두 처리해주셨다. “학생들이 손 다치면 안되니까, 내가 조금 바빠도 이런 건 해줘야지요.”라고 말씀하시는 교수의 얼굴은 무척 흐뭇하고도 흥미진진한 표정이었다. “이 시간만 되면 참 재미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악기도 만들어보고 싶어하는구나’ 해서 더욱 신기하구요.”

학생들은 교수님께 줄을 서서 질문하고, 교수님도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일일이 학생들의 악기를 확인해주셨다. 열띤 수업 분위기에 취재가 방해가 될 것 같아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결례를 무릅쓰고 두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수강생이자 수업 조교인 유혜림(작곡과·09) 학생에게 수강 소감을 묻자, “악기를 만든다는 사실 자체보다, 각자 전공에 따라 악기 제작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게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각자 어떻

게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라고 대답 해주었다. 또 오영호(농경제사회학부·10) 학생은 “악기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워요. (웃음) 저는 원래 피아노를 치는데, 보통 사람들이 악기의 소리나는 원리를 생각하며 연주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듣고 나니 정말로 소리의 과학과 원리를 알고,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게 흥미로워요.” 라고 대답했다. 유혜림 학생은 “원래는 뭔가의 케이스였을— 원통으로 타악기를 만들고 있었고, 오영호 학생은 도마를 올림판으로 쓰고, 그 위에 기타줄과 줄감개(peg)를 붙여 현악기를 만들고 있었다.

수강생들에게 각자 만들고 있는 악기의 이름도 묻고 왜 이 악기를 만들고 싶었는지 자세히 물어보지 못한 것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지만, 각자 자신의 작업에 몰두해 있는 수강생들을 더 이상 방해할 수는 없었다. 상상 속의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 공방처럼 멋진 곳은 아닐 지 몰라도 수강생들은 음대 한 칸에서 각자 꿈꿔왔던 소리를 직접 구현해보는 기회를 손에 넣었다. 어디 이 뿐인가. 직접 만든 악기의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될 지도 모른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악기를 만들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수업을 강력히 추천한다. 물론 분명히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성취감과 재미는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칠 것이다.

신예슬(음악과 석사과정)



두 드림 과 울림 의 미 학

실내악 앙상블 / 최경환 교수

Chamber Music Ensemble /Prof. Kyung-Hwan Choi

The lecture "Chamber music ensemble" was held every Friday on this semester. This class aims to develop student's collaboration ability. The class begins with Prof. Kyung-Hwan Choi's lecture and student's performance. In the interview, Prof. Choi said it is his honor to teach the best student in Korea and wished that they could enhance their skill through his class.



추운 날씨와 더불어 엄숙한 분위기가 가득한 최경환 교수님의 '실내악 앙상블' 수업을 찾았다. 본 수업은 기악과 관악전공에서 개설한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음악가가 되기 위한 앙상블 실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레슨 중이던 김수지(타악·12) 학생에게 잠시 앙상블 수업의 매력에 대해 물었다. 앙상블 수업을 듣는 지 3년째라는 김수지 학생은 "고등학교 때는 합주에 사용되는 악기가 한정적이었는데, 대학교에 와서는 합주를 통해 여러 종류의 타악기를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고 답했다. 또한 앙상블 수업을 통해 얻고 싶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합주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합주를 해서 실력을 높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수지 학생은 졸업하면 앙상블 쪽 진로를 택하겠다고 하며 "최경환 교수님께서 타악기는 치는 소리 하나하나가 음악성이 있다고 하시며, 더 풍부하고 예쁜 소리를 알려주셔서 음악가로서 성장하고 있는 기분입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앙상블 수업에 참여한 성주인(타악·12) 학생은 "다른 수업들은 주로 혼자 공부하고 혼자 배워요. 하지만 실내악 앙상블 수업에서는 40~50명이 함께 서로의 소리를 들어줘요. 자신이 어떤 소리를 언제 내고 어떤 박자에 쳐야겠다는 것을 배우면서 화합할 수 있었어요."라고 답했다. 그는 "타악기는 소음을 내는 악기라 이것들 만으로 는 음악을 만들기 힘들지만, 합주를 하면 정말 멋진 악기가 된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교수님께서도 '소음이지만 방해되는 소리가 아닌, 오케스트라를 감싸는 소리를 내라.'고 항상 말씀하세요."라고 말했다. 성주인 학생은 "빈이나 베를린 필하모닉 등 유명 오케스트라에서 팀파니스트가 되고 싶어요."라면서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실내악 앙상블 수업을 수강하며 꿈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앙상블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경환 교수에게 물었다. 최경환 교수는 좋은 앙상블을 위한 음악가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다. "훌륭한 앙상블을 하려면 개개인이 항상 노력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것도 음악이지만, 같이 앙상블을 하고 서로 마음을 합치는 것이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음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남과 더불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인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하다는 최경환 교수, 그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개인적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서로 사운드를 블렌딩시키는 면이 조금 부족하다며 이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고들이 빚어낸 이국적 향기

IBK 콘서트 / 윤희리 교수

지난 11월 22일, 기악과 윤희리 교수가 예술의전당에서 새롭게 기획해 선보이고 있는 '2013 예술의전당 클래식 스타 시리즈'의 일환으로 앙상블 "La Folia"와 함께 이국적인 무대를 구성해 연주했다.

'2013 예술의 전당 클래식 스타 시리즈'는 지난 2011년 10월에 개관한 실내악 연주 전용공간인 IBK챔버홀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프로그램으로, 국내외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클래식 스타들을 초청해 최고의 앙상블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22일에 개최된 무대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입상으로 화제가 된 플루티스트 윤희리(서울대 교수), 국내 최고의 기타리스트 장승호(서경대 겸임교수),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타악기 연주자 김미연(서울시향단원)이 만나 결성된 실내악 앙상블로 지명도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최고의 연주를 선사해 그 감동을 더했다. 특히, 기악과 윤희리 교수는 놀라운 연주력과 아름다운 음악성을 지닌 플루티스트로서,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등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하였다. 여러 우수한 오케스

트라 수석주자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그 외에 국제 심사위원, 실내악 단원, 상임이사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번 연주회는 평소 고음악 연주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윤희리 교수가 관객들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프랑스와 스페인 작곡가의 곡들을 들려주었다. 연주 프로그램은 《오테르 모음곡 c단조》를 시작으로 마렝 마레의 《스페인의 라 폴리아》, 포레의 《돌리 모음곡》,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느 제1번》, 다리우스 미요의 《스카라무슈》, 에릭 사투의 《피아프 메들리》, 비제의 곡을 보네가 편곡한《카르멘 환상곡》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각 악기의 솔로 무대 후 앙상블 무대로 이어지는 구성을 가진 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악기 별 특성을 반영하여 이국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도록 다채롭게 편성되었으며, 무대 조명과 의상까지 상상력을 더해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함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 관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IBK Concert

On last November 22nd, Prof. Hyeri Yoon from the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composed a recital stage and performed with the Ensemble "La Folia" as a part of the "Seoul Arts Center Classic Start Series". The program of this concert consists of unfamiliar pieces of French and Spanish composers that are not easy to hear in daily life and successfully created exotic atmosphere as well as well-structured program. Audience of the concert was highly satisfied.



사진출처-예술의 전당

음악대학 연구프로젝트 탐방

인간 뇌의 음악 모듈:

화성, 선율,

리듬의 신경학적

메커니즘 연구 /

이석원 교수

Musical Module of Human Brain: Research on Neurological Mechanism of Harmony, Melody and Rhythm

Professor Yi, Suk Won from the Theory Major of the Department of Composition formed a joint-research team with Professor Chun-ki Chung from the College of Medicin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ho is also a current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Neur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has been actively working on Brain Science Project to uncover the neurological foundation for music and musical processing. The main research topic of the project is to discover scientific evidence of brain mechanism of the process of perceiving and interpreting music, as well as the complex process of music performance, from reading score, analyzing it and planning the finger movement to produce accurate sound to feedback after the execution.

최근 음악 대학에서는 다양한 연구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오늘은 음악과 뇌 과학 프로젝트팀을 방문하였다. 작곡과 이론전공 이석원 교수는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천기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와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음악에 대한 신경학적 기반을 밝히는 뇌 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병원의 MEG 기기를 통해 음악을 들을 때 나타나는 뇌의 반응을 측정하여 인간이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 악보를 보고 손가락 움직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연주하는 과정에 대한 뇌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연구 주제이다. 2010년 처음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일반 공동연구로 선정되어 2013년까지 약 6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2013년에 또 다시 연구재단의 융합 연구로 선정되어 2016년까지 연구비를 지원 받을 예정이다.



Expedition into Research of College of Music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 시대에, 이석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음악과 뇌 과학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 융합 연구의 바람직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가 시작된 2010년부터 음악관련 창의연구의 대표 주자로서, 이석원 교수는 다양한 세미나와 학회에 참여해 음악 신경과학 연구를 국내 외에 알려졌다. 2010년에는 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뇌 과학, 음악을 만나다' 세미나에 참여하여 음악 분야 전문가로 강연을 하였으며, 2011년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음악인지학회(APSCOM)에서 국내 학자로는 최초로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였고, 2012년도에는 국제음악학회(IMS) 동아시아 지부를 설립하여 최초로 음악인지(Music Cognition) 워크숍을 성사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3년에는 서울대 재직 교수 중 각 분야에서 우수한 창의연구 성과를 나타낸 교수를 대상으로 수상하는 '2013년도 글로벌 창의, 융합 연구자' 8인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또한 2014년 1월에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수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 등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연구팀의 구성원 또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경면 연구원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음악인지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BK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설재호 연구원은 서

울대학교 인지과학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 핀란드에서 박사 후 과정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박정미 연구원은 서울대 음악학 박사 과정 수료 후 경북대, 성신여대, 경희대 학부 및 대학원 등에서 음악심리학을 강의하고 있고, 계희승 연구원은 홍콩대로 진학하여 음악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임술 연구원은 서울대 음악학 박사과정에 진학하였다. 연구팀 출신 학생들은 음악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뇌 과학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융합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찬희 연구원은 음대 석사학위 취득 후 서울대 뇌 과학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현재 서울대 병원 MEG 센터 근무 중이며, 배다혜 연구원은 음대 이론전공 학사 취득 후 서울대 뇌 인지과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하여 서울대 병원 신경정신과 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다. 21세기는 뇌 과학의 시대라고 할 만큼 신경과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이석원 교수의 음악 신경과학 연구팀은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는 음악과 뇌 과학 두 분야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음악 연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에도 연구팀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융합연구를 통한 음악 이론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해 본다.

이경면(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BK 조교수)



MEETING OF TWO WORLDS

에세이/Roland Breitenfeld 교수



One of a decisive event for me in past years was the KBS radio program entitled "Meeting of two Worlds". This program was broadcasted in 2010, and the concert of the Ensemble Korean Music Project (directed by Prof. SngKn Kim) was transmitted to the whole Korea. That meant it could be heard via the internet all over the world.

The concert took place in the Goethe-Institute in Seoul and was dedicated to Robert Schumann for the 200th anniversary of his birthday: Korean traditional music alternated with Schumann lieder for baritone and piano. Did it work? - "Yes" was the audience's answer after the concert. In fact, it worked very well indeed. - And what else was there? There was also a new composition commissioned by the Goethe-Institute. When I was asked whether I could compose a piece on this theme, a combination of Schumann and traditional music, my first reaction was that it could never work. But still, something made me say "yes". And that resulted in my composition "Sidcho, das keinen Trost weiss" for gagok singing, baritone, daegeum, haegeum, janggu, piano and electronic sounds on the poem with the same name by Reiner Kunze in German and Korean - translated by Prof. Dr. Young-Ae Chon from the German Department of our SNU. Then she also helped me to interpret properly and to understand the sidcho by the Korean poet Hoang Jini, which was placed before the poem as a motto, to incorporate the setting musically - in a weave of sometimes simultaneous texts and simultaneous Schumann citations and chords with new up-to-date tones and sounds.

The audience was very enthusiastic and the question of whether such a combination is possible was not asked again.

The title of the radio programme which I have placed at the top of this report about the time I have spent so far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ctually also mirrors my life between 2006 and 2013.

To give a rough outline of this "meeting of two worlds" I would like to mention a few statistics which also make it clear that this meeting was not limited only to Korea but went on having effects in Germany.

Of the 56 concerts I gave during this time, 23 took place in Korea, 30 in Germany and 3 in other countries (Romania, Spain, USA). Korean musicians were involved in 29 of these concerts, some of which also took place in Germany. For

example, counting only the concerts in Germany, 26 works by Korean composers were on the programme and in 7 concerts Korean traditional music was also heard. I myself organized and managed 20 concerts. During this period 27 of my own works were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There was a sound-installation (musical duration about 8 hours) which ran for about two weeks, several radio programmes in Korea, Germany, Romania and Hungary, a 40-minute television programme, several CD productions (labels in Germany, France and Portugal) of which one was awarded the gold medal "DIAPASON d'OR" in France - with the words: "Bel espace sonore, avec une très bonne homogénéité entre l'acoustique et l'électronique...." (for the work by Gerard Grisey "Les Chants de l'Amour" for 12 soloists and electronic sounds - with the Schola Heidelberg under Prof. Walter Nussbaum; electronics and sound design were in my hands.)

Other high points included a performance of my composition "Annunciacione" for organ, percussion and live-electronics in Bremen - in Bremen Cathedral - with subsequent CD production together with the other pieces from the concert by Radio Bremen and the label "Zeitklang". The recordings could only be carried out at night and took several nights - because the cathedral was open during the day time. We were then able to repeat almost exactly this same concert here in Seoul (in the Torch-Center) - with additional compositions by Prof. Donoung Lee, Prof. Younghy Pagh-Paan and Isang Yun - with Zsigmond Szathmáry, professor for organ of many years' standing at the Freiburg Musikhochschule, at the organ, percussion Olaf Tzschoppe, Professor for percussion instruments in Bremen and member of the world-famous ensemble "Les Percussions de Strasbourg", electronics and sound design Roland Breitenfeld and in Seoul together with Prof. Donoung Lee.

In my concert series in Freiburg, "profectio", which I started in the year 1991 together with Prof. Donoung Lee, a large number of works by Korean composers have been performed. Some of these concerts too involved cooperation with the Korean Music Project of Prof. SngKn Kim and his musicians from Seoul with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The audiences were delighted and applauded enthusiastically to thank the ensemble with their instruments and sounds which are so unusual in Germany.



Here too it was apparent that the audience could be enthralled by the combination of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and sounds with western traditional instruments and sounds and with electronic music; people were in raptures about the new sound experiences.

Now I find that I can include more and more of these experiences and sound examples in my teaching at our Music-College which here too is taken in by the students with much interest, especially when it is possible for me to offer quadrophonic replays of concerts in our electronic studio. This improves the sound experience markedly and provides a very good sound simulation of a real concert situation. When this can also be combined with reading the musical score, it becomes a high point for the students - especially when followed or preceded by detailed analysis of the work. Then you have - analysis, sound experience, concert situation and naturally also discussion of the method of composition, treatment of text material, combination with electronic sounds or effects of live-electronics, i.e. use of known computer programmes or details of composition or handling of electronics which the students of composition will need in the future - and all that simultaneously in one lecture.

Also to be mentioned are the cooperation with our piano class and the concert with the works by Steve Reich ("City Life") and John Adams ("Pianola Music") - at the pianos: Prof. Jong Hwa Park, Prof. Aviram Reichert together with the TIMF Orchestra. The electronic sounds were produced by my class of students "Music-Electronics" under my direction.

Because of my work with the KMP, in recent years I have composed seven pieces for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Likewise, in the concert series "Eight Elements Sounds", six new pieces with the themes of historical traditional elements have been developed. "Stones" and "Metal", two compositions from the year 1998, were chosen by Prof. SngKn Kim and, as I remember, these two compositions played a large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idea for this very special concert series. The concert series was planned by Prof. SngKn Kim. One concert of the series is still to be performed and will probably have its première in spring 2014. For this concert I composed the pieces

for the elements "earth" and "skin" during my sabbatical year. Also during my sabbatical year the composition "Ereignisse V" for flute, oboe, clarinet, bassoon, percussion, piano, violin, violoncello and live-electronics. This composition is to have its première in October 2014 during the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 in Seoul with the Ensemble Aventure from Freiburg. Here too there will be a meeting of "two worlds".

Last but not least - I wish to draw attention to the contribution of Prof. Dr Young-Ae Chon to my work. Because of her translations of modern German lyrics into Korean, several Korean composers have set poems by Reiner Kunze to music. In 2013 Reiner Kunze had his 80th birthday and two very interesting concerts were given in Freiburg and in Oberzell near Passau where Reiner Kunze lives. Present once again with great success were the Korean Music Project from Seoul with Prof. SngKn Kim and the ensemble profectio-initiative-freiburg.

I have very often composed those of my own works which make use of texts translated into Korean in two languages - the chamber music, in some cases, with two languages simultaneously. In the above mentioned work "Sidcho, dass keinen Trost weiss" the original Korean sidcho is sung in Korean, the German poem, on the other hand, in the German language and the commentaries, which I have woven in, in both languages.

This simultaneousness is no longer possible in more extensive works. In recent years I have been able to complete the composition of an opera which I began as much as 30 years ago. Here too Prof. Dr Young-Ae Chon (awarded the gold medal of the Goethe-Gesellschaft in Weimar, Germany in 2012) has translated the libretto into Korean so that I can hope that this opera might be performed here in Korea in the Korean language sometime in the next years. I actually composed the score in two languages. The title is: "Der Kleine Prinz / 어린 왕자" after the book with the same name (The Little Prince) by Antoine de Saint-Exupéry. In this case the performance is to be in just one language. Here in Korea, naturally, in Korean.

With this work I would very much like to say thank you to the Korean people that I can teach here at this excellent university and that I can live in Korea.

서 양 의 창 을 만나 다

EBS 서양음악기행 / 박종화 교수



Trip on Western Music

EBS의 서양음악기행을 프레젠테어로 함께할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계획된 현지촬영 출발 한달 전이었다. 평생 피아니스트로서 음악을 접하다 프레젠테어라는 제3자의 시각에서 음악세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설렘과 항상 만나고 싶었던 음악가와 대담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선뜻 받아들이고 싶은 제안이었지만, 전혀 경험이 전무한 프레젠테어라는 역할에 대한 거부감에 많은 고민과 의아함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도전장을 건네 받은 이상,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자신을 설득하며 긴 고민 끝에 받아들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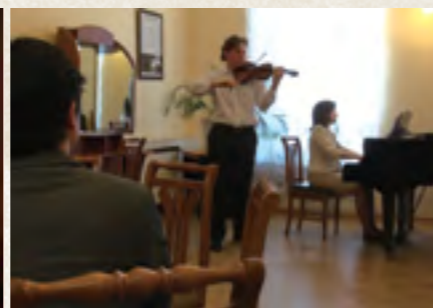
여행여정은 상트 페테르부르크, 비엔나, 뉴욕이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백야가 시작하는 무렵 우리는 “서양의 창”이라고 불리는 도시에 도착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에 빠져들었다. 상트는 백야가 시작되면 해가 밤 12까지 지지 않고, 웅장한 네바강 위에는 금으로 도색 된 지붕들이 반사되어 반짝이며, 거리는 사람들로 붐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밤 9시가 되면 도시 곳곳에 있는 홀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콘서트가 끝나면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로 조용했던 거리들이 활기를 되찾는 광경이었다. 상트의 시민들은 음악을 사랑한다. 유서 깊은 마린스키 극장부터 시작하여 역사적인 극장들이 많으며 극장 안은 매번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찬다. 연주 되는 레퍼토리도 독특하다. 거리를 걸어 다니며 극장들의 문 앞에 전시되어있는 포스터들을 살펴보면은 19세기와 20세기의 러시아음악이 유럽음악들과 절묘한 조화로 조합된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었다.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을 지향하는 보수파와 민족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는 진보파의 갈등으로 인해 발전을 이룬 러시아음악은 그 속도에서 우리나라의 한강 위의 기적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한 성



장을 이루었다. 백야의 축제의 오프닝 콘서트로 새롭게 완공된 마린스키 II 극장에서 수십 년간 만에 처음으로 연주된 다르고미시스키(Dargomyzhsky)의 《루살카》를 감상하며 언뜻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백 년 전에 만들어진 문화적 유산은 오늘날 자랑스럽게 러시아 민족을 대표하는 클래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세계적으로 즐겨지고 있다.

사이먼 래틀이 말했듯 서양음악은 이제는 더 이상 서양고유의 문화가 아니다. 연주자들의 주도권이 서서히 동양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시장도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이 서양을 능가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에서 공은 벌써 우리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옆에 앉아있던 상트 토바이에게 새롭게 지어진 홀이 어떠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바로 옆에 옛날부터 우리와 함께한 마린스키 극장을 분위기나 음향적 면에서 더 선호합니다.”

마린스키 II 에서 나와 에메랄드 색깔의 마린스키 본 극장의 외면을 손으로 만지며 걸어가자 프로 스포츠 경기 때나 볼 수 있는 이동식 생방송용 대형 트럭들이 두 대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었다. 케이블들은 문어발 같이 뻗어 오래된 건물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트럭에는 두 개의 로고가 선명하게 칠해져 있었다. Mariinsky와 Sony. 필자는 그 장면을 보며 정치/경제적 현실과 문화의 가치에 대한 생각에 잠겨 상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네바강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며 물들이 서로 만나고 요동치는 바로 그 곳으로 향했다. 그 곳에 앉아 물소리를 음악 삼아 듣고 건너편에 길게 자리잡은 에르미타주 미술관 안에 있을 수많은 미술 작품들이 눈 앞에 보일 듯 상상해하며 환한 밤 속에서 이 아름다운 도시에 작별인사를 했다.



무대 뒤의 숨겨진 열정 오페라 《돈 파스칼레》 리허설

201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기오페라 《돈 파스칼레》의 총리허설 현장에 가 보았다. 공연을 하루 앞둔 날이라 그런지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리허설에 임하는 모습이였다. 이 날 오페라에 참여하진 않지만 동기들과 선배를 응원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한 성악과 학생들의 뜨거운 동기애도 엿볼 수 있었다.



연습생 한마디! 게릴라 인터뷰 연습실 탐방



2013.12.03.
12:55p.m.

한승희(기악과 하프전공 · 12)

“하프 연습실이 따로 생겨 마음껏 연습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연습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12.04.
11:52a.m.

왕정은(국악과 해금전공 · 11)

“연습을 더욱 하고 싶게 이끌어주는 마법의 온돌바닥 감사합니다.(♥!!!!)”



2013.12.04.
12:03p.m.

김예지(국악과 대금전공 · 09)

“졸업연주 연습 중! 이제는 그리운 연습실.”



왼쪽부터 신다영, 안정민, 양희원, 연예슬, 박희진

〈음대 카페 ‘느티나무’에서 만난 성악과 11학번 학생들〉

화창한 어느 날, 음대 카페 느티나무에서 다정하게 모여있는 성악과 11학번 학생들과 잠시 담소를 나누어보았다.

– 11학번이면 3학년으로 고학년에 속하는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며 학교에 다니나요?

희진 “예술인이란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요, 또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지 놀러 가고 싶어요.”

– 음악을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다영 “무대에 한번 서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절실히 느껴요”

희원 “요즘은 스튜디오 2021때문에 바빠요. 현대곡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레슨에 들어가기 전 카페에서 악보를 보고 있던 안정민 학생. 연습실에 있지 않고 카페에서 악보를 들여다 보는 이유를 물었다. 정민 “곧 레슨이라 목을 아끼려고요”

때론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결국엔 음악으로 다시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성악과 학생들.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그들의 멋진 노래를 기대해 본다.

2013년도 2학기 콩쿠르 입상자



성악과		
	이명현(석)	Neue Stimmen 국제성악콩쿠르 1위 제40회 닥터 루이스 시갈 국제음악콩쿠르(칠레) 1위 제6회 광주성악콩쿠르 2위
	김승직(09)	제53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제14회 CBS 전국음악콩쿠르 최우수상 제3회 글로리아오페라단 콩쿠르 1위
	김정훈(09)	제6회 광주성악콩쿠르 1위 2013 한국성악콩쿠르 1위
성악		
	박주현(10)	TG 전국 성가 콩쿠르 금상 31회 대구 성악 콩쿠르 우수상 53회 동아 음악콩쿠르 3위
	이수홍(12)	제4회 청도 연지 예술가곡 콩쿠르 1위
	조민규(석)	제4회 청도 연지 예술가곡 콩쿠르 2위
	김수지(10)	한국 청소년콩쿠르 2위
	성호병(10)	제18회 음악춘추음악콩쿠르 1위 없는 2위
	노영한(09)	제14회 CBS 전국음악콩쿠르 2위
	정재원(09)	TG 전국 성가 콩쿠르 동상
작곡과		
	임성완(10)	2013 평촌아트홀 국제 실내악 콩쿠르 장려상 수상
	송낙호(석)	제41회 범음악제 입선
	유리나(석)	제23회 대전현대음악협회 현대음악2013-젊은 작곡가의 밤 입선
작곡		
	유영지(석)	제3회 전주국제현대음악제 입선 제23회 대전현대음악협회 현대음악2013-젊은 작곡가의 밤 입선
	장아름(석)	제23회 대전현대음악협회 현대음악2013-젊은 작곡가의 밤 입선 TJMF 앙상블 'Composing Factory' 입선
	유웅재(석)	제3회 전주국제현대음악제 입선

기악과		
	고연경(11)	제17회 한국 피아노학회 콩쿠르 1위
	원요한(13)	7th International J.S.Bach Music Competition in Kurume - 1st prize, semi - Grand Prix
피아노		
	손아진(13)	The Tel-Hai International Concerto Competition - 1st Prize & Audience Favorite Prize
	김하은(12)	Wei Wei Lee in Taiwan Piano Competition - 1st Prize
	이민성(석)	제53회 동아콩쿠르 4위
바이올린		
	이린다(10)	제5회 부암음악콩쿠르 3위
비올라		
	박다영(12)	한국 현악기협회 콩쿠르 대학부 1위
첼로		
	조재형(석)	한독 브람스 콩쿠르 1위
바순		
	홍유진(12)	제53회 동아음악콩쿠르 3위
플루트		
	손예진(12)	제53회 동아음악콩쿠르 2위
오보에		
	이광일(11)	제53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클라리넷		
	정유진(12)	6th Beijing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클라리넷 부문 입상
국악과		
작곡		
	김보현(박)	(사)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제2회 가야금창작곡 공모전 금상
	김지선(석)	(사)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제2회 가야금창작곡 공모전 은상
가야금		
	황이레(09)	제11회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창작부문 은상
	송정아(석)	제23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우수상
	추현택(12)	제39회 전국 난계국악경연대회 대학부 대상
대금		
	신희재(05)	제39회 전국 난계국악경연대회 일반부 2등
거문고		
	허익수(박)	제39회 전국 난계국악경연대회 일반부 대상(대통령상)
피리		
	김보들샘(10)	제23회 KBS국악대경연 대상
해금		
	정다연(08)	제23회 KBS국악대경연 해금·아쟁부문 장원
	최민지(09)	제5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대상
실내악		
	소리울	제5회 아트밸리 국악인의 축제 국악실내악 페스티벌 최우수상
	비움	제5회 아트밸리 국악인의 축제 국악실내악 페스티벌 은상



FACULTY ACTIVITIES

교수동정

FACULTY ACTIVITIES

성악과 Department of Vocal Music

윤현주 교수, 오페라 <돈 파스칼레> 총 예술감독 맡아

Prof. Yun, Hyunjoo appointed as the music director of Opera 'Don Pasquale'.

부암아트홀에서 10월 15일 열린 '한국가곡, 대장정의 문을 열다' 공연에 출연하였다. 10월 24~26일 서울대 문화관대강당에서 열린 오페라 <돈 파스칼레>의 총 예술감독을 맡았다. 11월 11일 콘서트홀에서 음대 'STUDIO 2021' 행사 중 'STUDIO V' Concert 합창지휘자로 출연하였다. 12월 11일 교수회관에서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주최로 열린 '오페라와 인생'을 주제로 특별 강연자로 참여하였다.

서혜연 교수, Vincenzo Bellini 국제 성악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참여

Prof. Seo, Hye-Yeon participated as a judge in the Vincenzo Bellini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Singer and Pianists.

2013 평창 스페셜 뮤직페스티벌(PSMF) 기획운영위원 및 멘토단장으로 활약하였다. 8월 27일 충주 세계조정경기대회개최기념 축하공연에 출연하였고, 8월 29일 중국 연변대학교 초청으로 열린 Master Class에 교수로 참여하였다. 10월 29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로마 오페라극장 1900' 의상, 무대디자인 전시회' 개막공연의 총 예술감독과 기획을 맡아 참여하였다. 11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삶과 나눔' 콘서트에 출연하였고, 11월 27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원미동인회 음악회 '베르디와 동시대작곡가들' 콘서트에서 출연하였다. 그리고 12월 2~6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44회 Vincenzo Bellini 국제 성악콩쿠르에 초청되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박미혜 교수, KBS홀에서 열린 'UN 추모 평화음악회' 출연

Prof. Park, Mi-Hae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Memorial Concert held in KBS Hall.

원주 음악당에서 9월 30일 열린 '가을맞이 가곡의 밤' 음악회에 출연하였고 10월 23일 KBS홀에서 열린 'UN 추모 평화음악회'에 출연하였다. 또한 12월 26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필리핀 재해난민 돕기 자선음악회'에 참여하였다.

박현재 교수, 10월 10일 페리지홀에서 테너 박현재 초청 독창회에 출연

Prof. Park, Hyun-Jae held a solo recital(Title: Tenor Park, Hyun-Jae's Invitation Recital) at Perigee Hall on October 10th, 2013.

페리지홀에서 10월 10일 테너 박현재 초청 독창회를 개최하였다. 10월 22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부천시립합창단 창단 25주년 기념음악회에 초청 연주하였고, 10월 25일 포은아트홀에서 열린 오페라 <춘향전>에서 주역으로 출연하였다. 또한 12월 26일 현대예술관에서 열린 오페라 <라보엠>에서 로돌포역으로 출연하였다.

연광철 교수, 미국 시카고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오페라 <파르지팔>에 구르네만츠 역으로 출연

Prof. Youn, Kwang Chul played as Gurnemanz in the opera 'Parsifal' held in the Chicago Opera House, USA.

지난 10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오페라 <파르지팔>에 구르네만츠 역으로 출연하였다. 또한 11월 13~29일 미국 시카고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오페라 <파르지팔>에서도 구르네만츠 역으로 출연하였다. 2014년 1월 17~23일 독일 뮌헨 국립극장에서 열린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 인>에서 주역으로 출연하였다.

작곡과 Department of Composition

작 곡 전 작 곡

정태봉 교수, 故 장정익교수 추모음악회-“鳴” 작곡가 장정익을 기억하며 . . . 에서 가곡 <허당(虛堂)에게> 초연
Prof. Chung, Tai-Bong premiered his lied <To Heo-Dang(虛堂)> at the Memorial Concert of the Late Professor. Jung-Ik Chang-“鳴”.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10월 10일 열린 ‘우리가곡연구회 20주년 기념 제31회 정기음악회 시리즈 우리 가곡의 밤’에서 정태봉의 가곡 <노랫길 1-2>이 연주되었다. 10월 30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미래악회 제38회 작곡발표회’에서 천용희 시인의 시에 의한 2편의 가곡 <담쟁이꽃>, <의암>을 초연하였다. 또한 11월 11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STUDIO 2021 음악회에서 소프라노와 두 대의 플루트, 피아노를 위한 <하늘소리>가 연주되었다. 12월 18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鳴” 작곡가 장정익을 기억하며 . . . (故 장정익교수 추모음악회)에서 가곡 <허당(虛堂)에게>가 초연되었다.

이돈웅 교수, ‘2013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에서 <소리(Sori)> 초연
Prof. Donoung Lee, premiered his new work <Sori> at the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 2013.

지난 10월 29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열린 ‘2013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에서 <소리(Sori)>를 초연하였다.

이신우 교수, 제38회 미래악회 작품 발표회에서 피아노 독주곡 <Chorale Fantasy No.2 ‘The Collar’> 초연
Prof. Shinuh Lee premiered her <Chorale Fantasy No.2 ‘The Collar’> for Solo Piano at the 38th Prospective Music Society of Korea’s Presentation Recital.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10월 30일 열린 ‘제38회 미래악회 작품 발표회’에서 피아노 독주곡 <Chorale Fantasy No.2 ‘The Collar’>가 초연되었다. 그리고 9월 23일 페리지홀에서 열린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리사이틀에서 작품 <Violin Fantasy No.2 ‘Laudate Dominum’>이, 9월 28일 부암아트홀에서 열린 백호정&김신애 조인트 리사이틀에서 <Chorale Fantasy “내 백성을 위로 하라” 中 sinfonia>가 연주되었다. 또한 작품 <Chorale Fantasies No.1~3 for Piano>, <Psalm Sonata for violin and piano>, <Lament for clarinet and piano>, <Expression for violoncello>의 악보집을 발간하였다.

최우정 교수, 창작공연 <달항아리> 음악감독 및 작곡가로 참여
Prof. Uzong Choe, participated as a music director and composer in the performance <Dal Hangari>.

지난 10월 강동아트센터와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창작공연 <달항아리>의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10월 9일부터 20일까지 LG아트센터에서 음악극 <더 코러스: 오디피우스>가 재공연되었다. 또한 11월 20일 세종 카메라타 오페라 리딩공연에서 창작오페라 <달이 물로 걸어오듯>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되었다.

Roland Breitenfeld 교수, ‘Concert Profectio initiative’에서 <Moments of Darkness for bass trombone and live electronics> 공연
Prof. Roland Breitenfeld, performed his <Moments of Darkness for bass trombone and live electronics> in the ‘Concert Profectio initiative’.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2014년 2월 12일 열린 ‘Concert Profectio initiative’에서 브라이텐펠트 교수의 <Moments of Darkness for bass trombone and live electronics>가 연주되었다.

이 론 전 공

김규동 교수, ‘2013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III’ 에서 <Drei Klavierstücke> 초연
Prof. Gyoo-Dong Kim, premiered his <Drei Klavierstücke> at the 2013 Korean Music Expo III.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9월 11일 열린 ‘2013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III’ 에서 <Drei Klavierstücke>가, 10월 30일 ‘미래악회 제38회 작품발표회’에서 <Bridge of Sighs for Viola and Piano>가 초연되었으며 12월 19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鳴”작곡가 장정익을 기억하며 . . . (故 장정익교수 추모음악회)에서 <테너,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빈길”>을, 2014년 2월 20일 군산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국작곡가 4인4색’에서 <혼성합창을 위한 “오래된 부부”>외 1곡을 초연하였다.

임헌정 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방 순회 공연
Prof. Hun-Joung Lim, conducted and directed the concert tour of SNU Symphony Orchestra.

지난 9월 부천시민의날 경축음악회에서 주페의 <경기병 서곡> 등을 지휘하였고, 10월 5일 부천필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에서는 홀스트의 <군악대를 위한 모음곡 2번> 등을 지휘하였다. 10월 18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을맞이 가곡의 밤’에서는 김성태의 <동심초> 등을, 11월 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에서는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등을 지휘하였으며 11월 29일 열린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서는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 등을 지휘하였다. 12월 13일에 열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 <교향곡 35번>과 말러 <교향곡 1번>을 지휘하였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16일, 17일에 각각 대구와 전주에서 지휘하였다.

김덕기 교수, 학생오케스트라 뉴욕 연주 지휘
Prof. Docki Kim, conducted the New York Concert of the Student Orchestra.

지난 10월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렸던 서울대학교 정기오페라 <Don Pasquale>를 지휘하였고 12월 12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SNU Philharmonic Orchestra 정기연주회에서 E.Séjourmé의 <Marimba Concerto>(협연: 강수진)를 지휘하였다. 또한 1월 10일에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신년음악회에서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 등을 지휘하였고, 1월 13일~18일에는 학생오케스트라 뉴욕 연주에서 지휘를 맡았다.

이석원 교수, 서울대학교 “2013 글로벌 창의 융합 연구자” 8인으로 선정
Prof. Yi, Suk Won selected as one of the eight 2013 Global Creative Convergence Researcher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석원 교수가 이끄는 “인간 뇌의 음악 모듈”에 관한 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3년(2013-2016년) 연구과제로 선정되었다. 또한 타이페이 국립대만대학교에서 10월에 열린 국제음악학회(IMS: International Musicological Society) 동아시아 학술대회 전체 심포지엄에서 Dinko Fabris IMS 회장 및 Daniel Chua 홍콩대 인문대 학장 등과 함께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서울대학교 학사위원회(의장: 오연천 총장)에서 “음악하는 뇌”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12월에는 서울대학교 “2013 글로벌 창의 융합 연구자” 8인으로 선정되었다.

민은기 교수, 역서 <서양음악의 이해> 발간
Prof. Min, Eungi published the translated volume of <Understanding Western Music> (Sigma Press) last semester.

역서 <서양음악의 이해>를 발간하였다. (시그마프레스)

오희숙 교수, [Contemporary Music in East Asia] 발간
Prof. Oh, Hee Sook published [Contemporary Music in East Asia]

서울대 출판부에서 [Contemporary Music in East Asia]을 책임 편집하여 발간하였다. 이 책은 한국·중국·일본·독일·오스트리아·미국 음악학자들이 쓴 12편의 영문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공동저서 [한국음악 20세기 1: 작곡의 시작 - 1920년대까지 출생간 작곡가들]을 세종출판사에서 발간하였다.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가 선정되어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 음악 관련 자료 발굴 및 DB구축 - 1980년대 이후 독일어와 프랑스어권 국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프로젝트 연구책임자로 활동 중이다.

기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피 아 노 전 공

Reichert Aviram 교수,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심사
Prof. Reichert Aviram, judged at the ISANGYUN Competition 2013.

지난 7월 11일 김영률 교수가 지휘하는 SNU 윈드 앙상블과 거센의 <랩소디인 블루>를 연주하였다.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MUSIKATA 코스에 참여하였으며,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열린 Tel Hai master course에서 마스터 클래스 및 독주회를 가졌다. 또한 10월 26일 방송된 MBC '2013 바보나눔 스페셜 콘서트'에 출연하여 연주하였다.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서 투어 콘서트를 가진 그는 University of Alabama, University of Michigan, Texas Christian University에서 연주 및 마스터클래스를 가졌다. 통영에서 열린 윤이상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11월 24일 예술의전당 IBK홀, 11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8인의 피아니스트'에 출연하였다.

박종화 교수, 재즈 피아니스트인 광윤찬과 알렉산드로 바리코의 모노드라마 'Novecento'에 초청

Prof. Jong-Hwa Park, invited to Jazz Pianist Yoonchan Kwak and Alessandro Baricco's monodrama 'Novecento'.

박종화 교수와 EBS가 함께 참여한 다큐멘터리 '서양음악기행'이 총 6부작으로 편성되어 9월 6일부터 EBS에서 방송되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박종화 교수는 과거의 위대한 작곡가들을 재조명하고, 동시대의 저명한 음악가들과 직접 대담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9월 11일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 32회 대구음악제 개막식 및 개막공연에 초청 연주하였고, 지휘자 김홍재가 지휘하는 대구시립교향악과 함께 Tchaikovsky의 <Piano Concerto No.1 in b flat minor, Op.23>을 협연하였다. 10월 19일에는 익산시교향악단 초청으로 송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Beethoven의 <Piano Concerto No.4>를 협연하였다. 또한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재즈 피아니스트인 광윤찬과 함께 알렉산드로 바리코의 모노드라마 'Novecento'에 초청되어 THE STAGE에서 공연을 펼쳤다.

주희성 교수, 부산국제 음악제 초청
Prof. Hee-Sung Joo, invited to Pusan Music Festival.

치악예술관에서 8월 30일 열린 원주시립교향악단과 임현정교수의 지휘로 베토벤 <황제>를 연주하였고 9월과 10월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고은, 양승희와 생상 <바이올린 소나타 1번>과 <2번>, 슈베르트 <판타지>, 프랑크 <소나타>를 연주하였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부산국제음악제에 초청되어 학생들을 가르쳤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폐막음악회에서 알렉산더 마자르(벨기에 왕립음악원 교수)와 피아노 듀오곡 라벨 <라발스>를 연주하였다.

최희연 교수,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III 공연
Prof. Hie-Yeon Choi, performed Beethoven's Piano Trio III at the Kumho Art Hall.

지난 7월 독일 Ost Friesland 하계 음악제에서 독주회(Beethoven I)를 가졌다. 9월에는 미국 Henderson 주립대, 미시간 음대(UofM), 신시내티 음대(CCM)에서 독주회(Beethoven II) 및 마스터 클래스를 가졌으며 금호아트홀에서 초청연주회로 베토벤 트리오(III) 공연을 하였다. 10월에는 제주 시향과 협연 (Beethoven 3번) 하였으며 1월에 스웨덴 Halmstad, 독일 Trier에서 독주회(Beethoven III)를 성황리에 마쳤다.

현 악 전 공

백청심 교수, 금호아트홀에서 첼로독주회
Prof. Chung sim Baik, held a solo cello recital at the Kumho Art Hall.

지난 10월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2013년 2학기 제1회 화요음악회 및 10월 21일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은 C.Frank Sonata A Major, R. Schumann Fantasie Stucke, L. V. Beethoven Zwolf Variationen uber das Thema "Ein Madchen oder Weibchen" aus der Oper: Die Zauberflote von Mozart, Op.66 그리고 A. Piazzola Le Grand Tango per violoncello e pianoforte로 구성되었다. 11월 17일에는 제3회 Spirit of SNU Strings에서 바이올린 이경선 교수, 비올라 최은식 교수와 함께 P.I.Tchaikovsky String Sextet in d minor, Op.70을 연주하였다.

최은식 교수, Just Vivace Festival Concert에서 음악감독으로 참여
Prof. Ensik Choi, participated in the 'Just Vivace Festival Concert' as a music director.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9월 10일 열린 제60회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에서 서현석의 지휘로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안양대학교 교수)와 W. A. Mozart - <Sinfonia Concertante for Violin, Viola and Orchestra in E flat Major, K.364>를 연주하였다. 그리고 9월 21일 예술의전당 IBK홀에서 열린 서울 스트링 콰르텟 정기연주회에서 객원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웨이 린(서울시립교향악단 부악장)과 첼리스트 박상민(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과 함께 W.A.Mozart, L.V. Beethoven, A.Dvorak String Quatlet을 연주하였다. 또한 9월 29일 예술의전당 IBK홀에서 열린 JVF Concert에서 음악감독으로 참여하였다.

이경선 교수, Perigee hall 개관 초청으로 독주회
Prof. Kyung Sun Lee, held an invited solo recital in celebration of the opening of the Perigee Hall. r

금호아트홀에서 9월 5일 브람스와 차이코프스키 현악사중주 전국 연주회에서 공연하였고, 9월 16일에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현대 음악 시리즈에 출연하였다. 9월 23일에는 페리지홀 개관 초청으로 독주회를 가졌고, 10월 19일에 M4one 챔버 앙상블에서 연주 하였으며 10월 26일에는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STUDIO 2021에 참여, Shostakovich와 Brahms의 작품을 연주하였다. 11월 1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Mozart <Sinfonia Concertante K.364>를 국군교향악단과 협연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 Spirit of SNU Strings III에 출연하여 최은식, 백청심 교수와 제자들과 함께 연주하였다. 11월 28일에는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서 Beethoven의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61>을 협연하였고 12월 12일에는 포항시립교향악단 제 133회 정기연주회에 출연, 포항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Ravel과 Saint-Saëns의 작품을 협연하였다.

백주영 교수, 펜데레츠키 지휘 아래 펜데레츠키 바이올린 협주곡 협연
Prof. Ju-Young Baek, performed as a soloist of Penderecki's Violin Concerto with Penderecki's conducting.

양상블 오푸스 정기연주회에서 9월 1일 라벨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를 리 웨이 친과 함께 연주하였고, 피아니스트 박종화 교수, 첼리스트 리웨이 친과 라벨의 <피아노 3중주 A단조>를 연주하였다. 10월 11일에는 도곡동 율 하우스에서 열린 음악감독 박창수의 하우스콘서트에서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함께 연주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고양아람누리극장 초청 '아람누리 심포닉 시리즈'에서 김대진의 지휘로 수원시향과 함께 멘델스존 협주곡을 협연하였다. 또한 12월 17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 서울국제음악제에서는 펜데레츠키 6중주와 브람스 피아노4중주를 연주하였고, 1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펜데레츠키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을 펜데레츠키 지휘 아래 협연하였다. 19일에는 일신홀에서 펜데레츠키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을 연주하였다.

기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관 악 전 공

김영률 교수, 2013년 9월 1일,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Prof. Young-Yul Kim, successfully lead the regular concert of SNU Wind Ensemble held on September 1st, 2013 in the Seoul Arts Center.

김영률 교수는 지난 9월 1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관악합주 정기 연주회에서 Ludwig Albert, Chin Cheng Lin의 마림바 협연을 지휘하였다. 9월 5일에는 군포 Prime Philharmonic Orchestra과 여자경의 지휘로 Mozart (Horn Concerto No. 3)을 협연하였고, 9월 8일에는 WFNS의 주최로 열린 'WFNS 2013'에서 SNU Wind Ensemble과 Opening Concert 지휘를, Coex Center에서는 Soprano 오영주와 함께 연주하였다.

9월 12일에는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제276회 정기연주회에서 지휘자 정치용과 함께 마산 3.15 아트센터에서 협연하였으며 10월 1일에는 대한민국국제음악제 Horn Ensemble 지휘를 맡아 Beethoven (Egmont Overture), Alec Wilder (Jazz Suite), Abreu (Tico Tico)의 프로그램을 Frank Lloyd의 Horn Solo로 지휘하였다. 서울대학교 문화관대강당 및 본부 앞 잔디밭에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학생오케스트라페스티벌 총감독을 하였다. 12월 17일에는 대한민국음악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국제음악제에서 연주하였다. 12월 13일에는 서울시 남부교도소에서 법무부교전국에서 주최한 공개강의를 통해 제2기 마아트 프로그램 "바로크에서 현대까지의 관악5중주 음악"의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악양상블과 함께 해설 및 연주를 하였다. 또한 12월 22일과 28일에는 김포시에서 주최하는 김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김동규 초청특별연주를 지휘하였다.

최경환 교수, 2013년 11월 22일 앙상블"La Folia"와 예술의전당 IBK홀에서 연주

Prof. Kyung-Hwan Choi, performed with the Ensemble "La Folia" on November 22nd, 2013 at the IBK Hall of the Seoul Arts Center.

지난 8월 평창 올림픽 뮤직 페스티벌과 제주 국제 타악기 아카데미에서 초청 강연을 가졌다. 또한 8일에는 서울대 하계 학위수여식 지휘를 맡았다. 10월 2일 <STUDIO 2021>에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13명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편곡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5번을 연주하였고, 10월 12일에는 서울대 동문음악회에서는 김정길의 Fanfare, 박영화의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섬은 헤엄치고..'를 피아노 주희성 교수님 그리고 제자 김지연 학생과 연주했다. 10월 18일 장천아트홀에서 서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휘를 맡았으며 10월 19일 목동 KT 챔버 홀에서 열린 KT와 함께하는 토요일 오후의 실내악에서 부천시향 팀파니 제 1 수석인 최주옥씨와 K. Helweg의 <American Fantasy>를 연주하였다. 11월 22일 고촌아트홀에서 초청받아 SNU Symphonic Band 연주의 지휘를 맡았다. 그리고 11월 26일에는 해군 군악대 특별 강연이 있었다.

윤혜리 교수, 11월 22일 고촌아트홀 초청, SNU Symphonic Band 찾아가는 연주회 지휘

Prof. Hyeri Yoon, conducted at the "Visiting Concert of SNU Symphonic Band" invited by Gochon Art Hall on November 22nd.

도곡동 율하우스에서 열리는 더 하우스 콘서트에 연주자로 초청되어 11월 15일 독주회를 가졌다. 연이어 11월 22일에는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시리즈의 일환으로 IBK홀에서 윤혜리와 앙상블 "La Folia"의 연주무대를 가졌고, 11월 30일에는 숭실대학교 배재영 교수 등과 함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사랑의 플루트 콰이어 무대를 60여명의 플루티스트들과 가졌다. 12월 4일에는 장천아트홀에서 한국 플루트 교육자 협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12월 17일에는 돌체아트홀에서 독주 무대를 가졌다. 12월 19일에는 금호체임버뮤직 소사이어티 라이네케 시리즈를 연주했다.

국악과 Department of Korean Music

이지영 교수, 남산국악당초청 지천명 산조축제 참여
Prof. Yi Ji-young participated in the Sanjo Festival upon the request of the Seoul Namsan Traditional Theater.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지난 10월 초청 연주를 가졌으며 10월 7일에는 서울아트마켓 초청 가야금 독주회를 가졌다. 11월 1일에는 '2013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초청 현대음악 앙상블CMEK 연주를 가졌으며 11월 8일에는 남산국악당 초청 지천명산조축제 이지영가야금독주회를 열었다. 또한 11월 29일~30일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파트오브네이처' 협연을 가졌다.

임재원 교수, 대한민국 국악관현악 출범 50주년 기념연주회에서 대금협연
Prof. Lim, JaeWon performed as a daegum soloist at the 50th Anniversary Memorial Concert of the Launch of Korean Traditional Orchestra.

국립극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악관현악 출범 50주년 기념연주회에서 지역회 국악관현악단(평택시)과 협연하였다. 10월 17일 사대 교육정보관에서 열린 서울대 사대와 관악구가 주최하는 관악시민대학원 과정에서 '우리소리의 멋'이라는 주제로 특강하였으며, 국립국악원에서는 11월 12일 서울대 음대 제55회 국악정기연주회를 지휘하였다. 대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12월 6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송년음악회를 지휘하였다.

김승근 교수, Work In Progress 개최
Prof. Kim, Sngkn held '2013 Work in Progress'.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10월 1일 열린 이상천 10주기 연주회를 기획하였고 10월 25일에는 전남대에서 전남대 초청 이상천 추모음악회를 연출하였다.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박물관 강당에서 박물관 한국음악시리즈를 기획하였고 11월 2일에는 문래 예술공장에서 2013 WORK IN PROGRESS를 개최하였다. 10월 8일과 12월 17일에는 관악사 사랑채에서 관악사 작은음악회를 기획, 해설 하였다.

정대석 교수, 정대석류 산조발표
Prof. Jeong, Dae-Seok presented the Sanjo in the style of Jeong, Dae-Seok.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8월 27일 <정대석 거문고 독주회>를 통해 '정대석류 거문고 산조 전바탕'을 발표하였다. 8월 31일에는 <제 37회 양주풍류악회 풍류한마당>에서 '정대석류 거문고 산조'를 연주하였으며 9월 13일 열린 <제38회 양주풍류악회 풍류한마당>과 11월 29일 열린 <제39회 양주풍류악회 풍류한마당>에서 정대석 작곡 수리재를 독주로 연주하였다. 여러 명인들과 함께 하는 이 연주회는 매월 한번씩 C(크라운해태)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0월 25일에는 터키 이스탄불 현지에서 '한국-터키 친선 음악의 밤- 이스탄불 국립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초청되었고, 이곳에서 거문고 협주곡 '수리재'를 연주하였다. 이번 연주회는 한국문화교류협회와 터키한인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

워크(KOWIN), 터키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 사업회, 이스탄불 큐츠체크메제 구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우리 국악과 이스탄불 국립 심포니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연주회를 가졌다. 12월 6일에는 서울대 경영전문 대학원에서 개설 된 Executive MBA(EMBA)에서 <백악지장 거문고>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우진 교수, 동양음악연구소 학술회의개최
Prof. Kim, Woojin hosted an academic conference of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김우진 교수는 지난 7월 5일 2013년 상반기 국악학회 상반기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소남가곡의 의의'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7월 26일에는 문화재청 주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보유자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8월 8일에는 경기도 도청이 주관하는 동두천 민요 현지조사에 참여하였다. 8월 30일에는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고, 9월 27~28일에는 충청북도 금산에서 개최된 동양음악연구소(연구소장) 학술회의에 참여하였다. 9월 30일에는 서울시 문화재 지정(시조) 현장 조사에 참가하였으며 9월 30일에는 '120년 만의 귀환, 미국으로 간 조선악기'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10월 19일에는 (사) 한국 정가 진흥회 주최 제2회 정가 학술대회에서 '가곡의 고정성과 유동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10월 25일에는 2013년 국악학 전국대회에서 좌장으로 참석하였다. 11월 10일에는 제12회 전국 정가경향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1월 11일에는 경상북도 경산에서 열린 전국 정가 경향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2월 18~20일에는 진도 전국대학생이론세미나를 인솔하였다.

Hilary V. Finchum-Sung 교수, 세계음악(Music of the World) 동영상 강의로 개설되어
Prof. Hilary V. Finchum-Sung, her lecture 'Music of the World' opened as an online video lecture.

2013년 한 해 동안 SEM(Society for Ethnomusicology)의 프로그램 위원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통예술분야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문화재청이 발간하는 "Korean Heritage" 에 "It Takes a Village: Passing on the Old Songs in Sopo-ri"를 기고하여 가을호("Korean Heritage" Vol. 6 No. 3)에 수록하였으며, 9월에 발간된 "남도민속연구" 제26집에 "The Meaning and Role of "Arirang" in the American Context" (미국에서 아리랑의 의미와 역할)가 영문과 국문으로 발표하였다. 10월 29일 한국학술연구원(KS)에서 주최한 45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회의와 11월 9일 이화여대 음악연구소 및 한국음악학회가 주최한 가을 국제학술대회 "기억, 기록 그리고 새 시대의 음악연구"에서 패널로 참여하였다. 더불어 2012년 12월부터 서울대 총동창회의 후원을 받아 CTL(서울대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추진한 서울대 열린강좌 사업에 'Music of the World (세계음악)'가 선정되어 2013년 11월부터 온라인(snuon.snu.ac.kr) 및 어플리케이션(SNU ON)으로 공개되었다. 또한 10월 1일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워크샵 특강, 10월 3일 영동남계국악축제와 10월 5일 전주국제소리축제의 해금 산조 연주를 통해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였다.

학과 및 연구소 소식

2013년도 2학기 주요행사

성악과

- 8월 14일 : 성악과 Master Class (음대 시청각실)
 - 강사 : Maestro, Ivan Domzalski (지휘자, 이반 돔잘스키)
- 10월 24일~26일 : G. Donizetti 오페라 "Don Pasquale" 공연 (문화관 대강당, 3회 공연)
 - 예술총감독: 윤현주
 - 지휘: 김덕기, 김영량 (SNU Harmonia 심포니 오케스트라)
 - 연출: 이경재
 - 출연: Don Pasquale (이바울, 함정찬) / Norina (김주혜, 박주현) Ernesto (강윤광, 장주훈, 고태영) / Malatesta (황선연, 우중범, 안정민)

작곡과

- *작곡전공**
 - 9월 16일 : STUDIO 2021 콘서트 및 강연 - STUDIO I
 - 9월 30일 : STUDIO 2021 콘서트 및 강연 - STUDIO II
 - 10월 2일 : STUDIO 2021 콘서트 - STUDIO III
 - 11월 4일 : STUDIO 2021 콘서트 - STUDIO IV
 - 11월 11일 : STUDIO 2021 콘서트 - STUDIO V
 - 12월 19일 : **故장정익교수 추모음악회 "鳴"** 작곡가 장정익을 기억하며 . . .
- *작곡전공**
 - 11월 5일~29일 : <작곡과 이론전공 주최 음악학 특강 시리즈 개최>
 - 11월 5일 : Music and the Brain
 - 연사 : 박정미 (경북대 출강)
 - 11월 6일 : RILM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음악연구
 - 연사 : Barbara McKenzie (RILM 편집장)
 - 11월 15일 : 포스트음반 시대의 음악하기
 - 연사 : 최유준 (음악평론가)
 - 11월 29일 : The Musical Lives of Two Teenage Girls, 1742-1744
 - 연사 : Andrew Talle (존스홉킨스 대학)

기악과

- 심포니오케스트라**
 - 11월 27일 :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12월 13일 : 심포니오케스트라 교내연주회
 - 12월 16일 : 심포니오케스트라 지방연주회(대구)
 - 12월 17일 : 심포니오케스트라 지방연주회(전주)
- 필하모닉오케스트라**
 - 12월 12일 :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피아노 전공**
 - 9월 6일 : 김원미 마스터클래스
 - 10월 17일 : Ashely Wass 마스터클래스
 - 10월 18일 : Eguchi Fumiko 마스터클래스
 - 11월 1일 : Jacques Rouvier 마스터클래스
 - 11월 15일 : Richard Braun 마스터클래스

- *현악 전공**
 - 9월 3일 : James Dunham Viola & Chamber Master class
 - 9월 30일 : Chiarra Quartet Chamber Master class
 - 10월 22일 : Wei He Violin Master class
 - 10월 23일 : Gustav Rivinius Cello Master class
 - 10월 30일 : Aaron Berotsky Violin Master class
 - 11월 4일 : Jeff Bradetich Double Bass Master class
 - 11월 5일 : Dmitri Murrath Viola Master class
 - 11월 17일 : SPIRIT OF SNU STRINGS III 공연 (장소 : 예술의전당 IBK홀)
 - 11월 22일 : Martin Röhr Cello Master class
 - 11월 26일 : String Ensemble 공연 (장소 : 예술관 콘서트홀)

- *관악 전공**
 - 9월 1일 :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_지휘 김영률)
 - 9월 2일 : Ludwig Albert - Percussion Master Class
 - 9월 6일 : Heinz Holliger - Oboe Master Class
 - 9월 7일 : Jeff Nelsen - Horn Master Class
 - 9월 8일 : SNU Wind Ensemble - WFNS 2013 세계신경정신외과학회 기념 연주회(COEX)
 - 9월 30일 :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 실황 "SBS 「문화가중계」" 방영
 - 11월 22일 : SNU Symphonic Band 찾아가는 음악회 (고촌아트홀_지휘 최경환)
 - 2014년 1월 9일 : SNU Wind Ensemble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연주 (지휘 김영률)

국악과

- 9월 11일 : 허윤정, 정민아 주요연주 특강
- 9월 27일 : 의정부시 주최 가야금페스티벌 초청연주
- 10월 1일 : 이성천 교수 추모연주회
- 10월 5일 :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 10월 8일 : Ken Ueno 교수 특강
- 10월 11일 : Ken Ueno 교수 연주회
- 10월 12일 : 제9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문음악회
- 10월 14일 : 전통가곡연주회
- 10월 17일 : 서울대학교 거문고 앙상블
- 11월 12일 : 제55회 국악정기연주회
- 11월 18일 : 판소리반 연주회
- 11월 20일 : 2013 창작음악연주회
- 11월 29일 : 우에무라 유키오 교수 특강
- 12월 4일 : 타악반 연주회(관악오구굿)
- 12월 5일 : 정악합주 연주회
- 12월 11일 : 관악합주연주회
- 12월 12일 : 현악합주연주회
- 12월 18일 : 해금반 연주회
- 12월 19일 : 장정익 추모음악회 참여
- 12월 31일 : 제2회 대학원 정기연주회
- 2014년 2월 17~21일 : 국악과 동계음악캠프

- 2013년도 2학기 화요음악회**
 - 10월 8일 : 백청심 교수 독주회
 - 10월 22일 : Sonata Palooza: Violin and Piano Masterpieces
 - 11월 5일 : Gabriel Chodos Piano Recital
 - 11월 26일 : 천원지에 피아노 독주회
 - 12월 3일 : 학생오디션 우승팀 연주회
 - 장소 및 시간 :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오후 4시

- 2013년도 2학기 병원음악회**
 - 11월 1일 : 보라매병원
 - 11월 6일 : 분당서울대병원
 - 12월 20일 : 서울대병원 연건캠퍼스

2014년도 1학기 주요행사

- *성악과**
 - 4월 중 : 성악과 전반기 세미나
 - 교수님 특강, 세미나, 단합대회, 체육활동, 선배들과의 간담회
 - 저명 연주가 Master Class 개최(미정)
- *작곡과**
 - 작곡 전공
 - 5월 23일 : Sofia Gubaidulina 워크샵

- *기악과**
 - 3월 : 2013년 전기 학위수여식 및 2014학년도 입학식 연주 / 신입생 음악회
 - 5월 : "SNU Symphonic Band 용산아트홀 초청 연주"(용산아트홀_지휘 최경환) / "2014 SNU Wind Ensemble Spring Concert"(서울대학교 문화관_지휘 김영률)
 - 5월 23일 : 서울대음대-북경중앙음악원 합동연주회(중국 콘서트, 중국북경)
 - 5월 28일 : 심포니오케스트라 교내연주회
 - 6월 23일 : SNU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 8월 : "2014 SNU Wind Ensemble Concert"(예술의전당_지휘 김영률)

- 피아노 전공**
 - 2월 17일~21일 : 2014 International Piano Academy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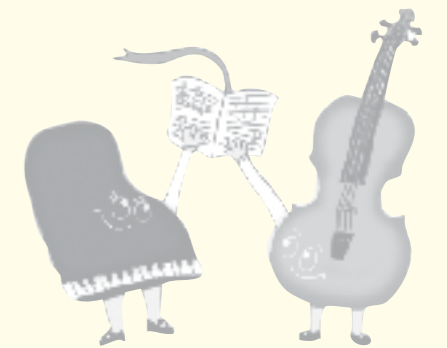
- *국악과**
 - 3월 : 신입생 환영 연주회, 신입생 연주회
 - 4월 : 국악과 봄 정기연주회
 - 5월 : 서울대학교 학부모 초청 연주회, 국악과 교수음악회
 - 5월 매주 수요일 : 서울대학교 박물관 수요 한국음악 연주회
 - 8월 : 국악과 하계방학 연주특강

- 화요음악회**
 - 4~5월 : 5회

- 병원음악회**
 - 5~6월 : 3회

동문소식

Alumni News



이시내, 스코틀랜드 왕립예술원 교수 취임



1976년 서울에서 출생한 이시내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기악과 피아노전공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 있는 스코틀랜드 왕립예술원(Royal Conservatoire of Scotland)에서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최우수로(with Distinction) 석사 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이화영, 장형준 및 필립 젠킨스를 사사하였으며 현재 스코틀랜드 왕립예술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음악교육기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편집위원 한마디



순간의 기록,
끊임없는 기다림,
음대의 멋진 기준점으로 남길
_혜영



Semper ad Meliora
_여은



Lucete!
_석영



말은 날아가지만 글은 남는다
_수지



아쉬움이 남는 첫 편집
_문영

빨간 우체통



어디에? 54동 음악대학 1층 로비

음악대학 소식 제13호 | 2014년 3월 1일 발행

발행인_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김영률

기획_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학장 이지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_ 오희숙 기획홍보실장(작곡과 교수)

편집위원_ 김혜영 기획홍보실 실무관

강수지 작곡과 이론전공

김석영 작곡과 이론전공

손문영 작곡과 이론전공

임여은 작곡과 이론전공

영문_ 스노버 고운 작곡과 이론전공

사진_ 249 스튜디오

디자인_ 디자인아프리카 02 · 6010 · 0907

인쇄_ 성광피엔피

College of Music Magazine Vol. 13

Publisher_ Prof. Young-Yul Kim,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r_ Prof. Ji-young Yi, Associate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Editorial Committee

Editor_ Prof. Oh, Hee Sook, Department of Composition, Chai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Editorial Board_ Hyeyoung, Kim Office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Kang su ji, BA course in Musicology

Seok Young Kim, BA course in Musicology

Moonyeong Son, BA course in Musicology

Yeoeun Lim, BA course in Musicology

English_ Gowoon Kim, Snover BA course in Musicology

Photo_ 249 Studio

Design_ Design in Africa

printing_ SUNGKWANG P&P